2012 제 48호

速記界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표지설명

꽃은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납니다.
오늘의 보습은 어제와 다르고
같은 꽃이라도 똑같은 꽃은 없습니다.
우리도 항상 새롭게 피어나길 바랍니다.

CONTENTS

2012 速記界 48호

04 머리말
향상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 고홍길

06 2011 인터스테노
제48차 인터스테노 총회 참가 보고 – 국제부(총무이사 김덕진 감수)
제48차 인터스테노 총회를 다녀와서 – 이혜경
프랑스 인터스테노 보고서 – 김일알

32 연구논문
총회의 의사록 Ⅱ (상법 제373조를 중심으로) – 김점동
일본 국회의 속기 시스템의 변화 – 최영림

52 인터뷰
궁금했습니다! – 권영장 이사

58 기자수첩
우리말 고운말 – 김나영 기자

62 세미나
나의 첫 속기학습세미나 – 김영진

66 새의자
5급 승진임용예정자 – 오정애

68 새내기 인사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 백종인
감사합니다. 의정기록과 정현석입니다 – 정현석

82 회원동산
숙진, 그리고 유학 – 손숙자
내가 가진 또 한 가지 – 성지연

96 협회동정
제45회 정기총회
한글속기 국가자격시험 방식 변경
협회 임원 및 기구표

104 편집 후기

매일 매일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 역시도 날로 새로워지려면
하루 하루를 새롭게 하고 또 매일 매일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 하루를 새롭게 하고 또 매일 매일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속기협회 회원 여러분!
회장 고홍길입니다.

용의 해가 왔다고 시끌벅적했던 것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입니다.
용 중에서도 흑룡은 변화를 상징한다지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참 변화가 많은 해이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총선이 있었고 또 올해 연말에 대선이 있을 것이고, 방송에서는 올해 말에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 방송으로 바뀐다지요. 우리 속기협회도 이번 이사진의 마지막 해이며, 올해부터는 속기자격시험 방식도 바뀐다고 합니다. 크게는 정치계부터 우리 속기협회 내부까지 이런 변화들로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와 닿는 변화들이 꽤 될 듯합니다.

작년에 파리에서 열린 인터스테노 총회 속기경기대회에서 우리나라 참가자가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위 입상자도 나왔고, 총 3명이 10위권 안에 드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두 번째 참가였는데도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속기의 방식은 변하지 않아도 기록의 방식은 변하고 있는 듯합니다. 국회 내에도 현재 회의록이 속기를 통한 회의록 시스템도 있지만 영상회의록 시스템이 도입되어 문자와는 다른 온도로 좀 더 생생하게 회의장 상황을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에서는 음성인식을 통한 회의록 작성 방법이 도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계가 아무리 정확하다고 해도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이 복잡한 목소리의 색깔과 언어의 다양성, 그리고 현장의 상황을 담아내기란 쉬운 일은 아니지요. 결국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기록하는 우리 속기사의 능력이나 자질이 기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에 살아남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자체의 변화이며 우리를 다져 나가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日新 日日新 又日新이라는 말이 있지요. 매일 매일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 역시도 날로 새로워지려면 하루 하루를 새롭게 하고 또 매일 매일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바뀐다고, 나는 항상 뒤처진다고 실망만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뀌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매일 조금씩이라도 노력하고 바뀌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벚꽃도 지고 봄비가 내리더니 온 세상이 초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은 온몸에 물기를 머금어 여름의 태양빛과 땅의 양분으로 더 많이 성장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겠지요.
우리 회원 여러분들도 올해는 좀 더 노력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입니다.

제48차 인터스테노 총회
참가 보고 | 국제부 총무이사 김덕진 감수

Ⅰ. 들어가며

48°Congrès INTERSTENO Paris 09-16 Juillet 20
48° INTERSTENO Congress Paris 09-16 July 20
48. INTERSTENO-Kongress Paris 09-16. Juli 20

다녀온 사람들에게는 새삼스러운 말이겠지만 파리에는 특유의 고혹적인 색감과 스타일이 있다. 길을 걷는 파리지엔의 차림새를 보면 크게 튀지는 않지만 왠지 현대적인 고상함이 묻어나는 가운데 깜찍하고 발랄한 파격의 양념으로 마무리 한 듯한 패션 센스는 절로 결눈질을 하게 만든다. 이는 까다롭고 도도하게 아름답지만 사랑스러운 파리의 모습과 흡사하다. 그뿐인가, 그냥 '블랙'이라 칭하기엔 저마다 묘하게 다른 색조를 뿜어내는 갖가지 검은색의 파노라마, 잿빛 하늘을 닮은 청회색, 강아지풀을 연상케 하는 흐린 녹색 등 은은하고 차분하면서도 은근히 매혹적인 색상의 '믹스 앤 매치'는 그야말로 발군의 조합이다.

이 도시가 지닌 우아하고 아기자기한 분위기는 예술과 패션, 디자인과의 찰떡궁합을 이끌어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곳에서 인터스테노 총회라니, 조금 생뚱맞기도 하지만 항상 여행객을 설레게 만드는 파리에서의 총회를 다녀오는 행운을 누리게 되었다. 지난해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파리 남서쪽과 북동쪽에 위치한 FIAF, Citè U, 파리시청 홀에서 일주일 동안 열린 「인터스테노 총회 2011」를 회원들께 보고 드린다.

Ⅱ. 인터스테노 총회 참가 개요

1. 참가 목적

- 기록문화와 속기에 관한 국제적 논의 및 발전방안 강구
- 각국 의회의 속기 방식 및 회의록 발간 정보 교류 및 현안 사항 논의
- 우리나라의 속기 및 속기사 양성 체계의 홍보를 통한 국제적 위상 증대
- 선진 주요국의 의회 속기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보 교류
- 속기경기대회를 통한 속기술의 향상과 비교를 통한 속기 기계의 발전

2. 총회 장소 : 프랑스 파리 FIAF 및 Citè U

3. 참가 기간 : 2011년 7월 9일(토) ~ 2011년 7월 17일(일) (7박9일)

4. 참가단 구성

- 단 장 : 이경식(협회 이사장, 국회)
- 대 표 : 손석련(협회 감사, 한국스테노)
  김점동(협회 이사)
  김덕진(협회 총무이사, 국회)
  정란(협회 자격심사 · 연구위원장, 국회)
  조미경(협회 회원, 국회)
- 속기경기대회 출전자
  김봉철(한국스테노)
  이한나(한국스테노)
  김진호(한국스테노)
  김밀알(국회사무처)

5. 참가국 및 참가 인원

37개국 600여 명 참가(참가국가명 : 알파벳순)

(아르가니스탄,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스위스, 카메룬, 칠레, 중국, 체코, 독일, 알제리,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가봉, 가나, 적

도기니, 온두라스, 크로아티아,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폴란드, 러시아, 슬로바키아, 스웨덴, 터키, 탄자니아, 영국, 미국, 한국)

6. 주요 일정

날짜	시간	일정	장소
7/9 (토)	09:00~19:00	Registration(등록)	FIAP Hall
	09:00~19:00	World championship in Multilingual Shorthand(다국어 속기 월드 챔피언십)	FIAP Competition rooms
	09:00~12:00	Jury meeting(심판원 회의)	FIAP
	14:00~17:00	Board meeting(운영진 회의)	FIAP
7/10 (일)	08:30	Council meeting(위원회) – first session	FIAP Lisbonne
	09:00~19:00	Registration(등록)	CitéU Hall
	10:00~13:00	Installation of exhibitors(전시회 설치)	CitéU Hall
	14:00~19:00	Exhibition(전시회)	CitéU Hall
	14:00~16:00	Official opening(공식 오픈)	CitéU Amphi. Adenauer
	16:00~17:30	Welcome drink(환영회)	CitéU Amphi. Adenauer
	17:30~18:15	Instructions for PC competitors (PC 경연자를 위한 안내)	CitéU Amphi. Adenauer /Salon Honnorat
	18:15~19:00	Instructions for speech capturing competitors (스피치 캡처 경연자를 위한 안내)	CitéU Amphi. Adenauer
7/11 (일)	08:00~09:00	Typewriting Training	CitéU Salon Honnorat
	09:00~11:00	Text Production competition (텍스트 프러덕션 대회)	CitéU Salon Honnorat
	11:00~12:00	Text Correction competition(텍스트 코렉션 대회)	CitéU Salon Honnorat
	09:00~12:00	IPRS 1st Meeting(첫 번째 IPRS 회의)	FIAP Lisbonne
	13:30~16:00	World championship in professional word processing(전문워드프로세싱 대회)	CitéU Salon Honnorat
	09:00~19:00	Exhibitions(전시회)	CitéU Hall
	18:00~20:00	International competition in Correspondence and summary reporting (서신 및 요약보고 경연대회)	FIAP Competition rooms
7/12 (화)	09:00~19:00	Exhibitions(전시회)	FIAP Bruxelles Hall
	09:00~12:00	Speech capturing world championship (스피치캡처 경연대회)	FIAP Competition rooms
	12:00~13:00	Realtime world championship(리얼타임 경연대회)	FIAP Competition rooms

Ⅲ. INTERSTENO 총회 주요 내용

■ 공식 오프닝 행사 (2011년 7월 10일 Citè U Hall)

총회의 시작은 흥겨운 분위기였으며 편안한 복장으로 서로 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즐거운 시간으로 꾸며졌다. 각국 회원들은 서로 인사하며 여행의 피로를 풀고 마음을 활짝 열어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의 우정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우리의 공식 대변인 조미경 회원의 입과 귀는 잠시도 쉴 틈이 없었고, 모두가 각자 각국 대표들과 명함을 나누고 함께 찍은 사진 속의 미소처럼 환한 웃음꽃이 피는 화기애애한 자리였다.

- 제48차 인터스테노 총회는 2011년 7월 9일~7월 1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으며 37개국에서 600여 명의 속기사 및 관계자들이 참가함.
- 오프닝 행사 시 프랑스 전통춤 등으로 흥을 돋운 가운데 각국의 대표들이 자국의 국기를 들고 나와 자국 언어와 영어로 인사말을 함.
- 우리나라에서는 이경식 이사장이 한국을 대표하여 태극기를 들고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음.

■ Council meeting (각국 대표단 회의)

둘째 날부터는 진지한 분위기로 우선 아침 일찍부터 각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Council meeting이 FIAP 회의실 Lisbonne 홀에서 개최되었다. 일종의 운영위원회 성격으로 총회 및

제반 행사를 어떻게 운영해 나아갈 것인지 인터스테노의 핵심 의제들을 다루었다.

1. 1차 회의(Council meeting : first session) – 7월 10일 일요일 08시 30분

- 부회장 Jaroslav Zaviacic 주재 하에 개의 및 회장 Gian Paolo Trivulzio 환영사 대독.(건강상의 사유로 회장 불참)
- 부다페스트에서 2010년 10월 2일 개최됐던 IPRS 보고.

→ 웹사이트 구축 제안 & IPRS 회원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논의.

- 주제발표1 – 중국의 속기교육(발제자 : Tang Keliang)
- 주제발표2 – 인터스테노 주최 속기 경기대회의 역사(발제자 : Boris Neubauer)

2. 2차 회의 (Council meeting: second session) – 7월 15일 금요일 08시 30분

- 총회에서 선출될 집행부 중에서 현재 1명인 부회장을 2명으로 선출하기 위한 정관(Constitution) 개정
- Council 멤버 소개
- 경기대회 종목 논의
- 총회에서의 집행부 선거 방식 논의
- 향후 2년간의 임기를 가진 신임 집행부 지명
- 2013년 벨기에 겐트(Gent)에서 개최될 제49회 인터스테노 총회에 관한 개요 보고 및 겐트시 소개(발표자 : Danny Devriendt)

■ 국제속기경기대회 (2011년 7월 11일~7월12일)

드디어 지난 베이징대회에서 무관의 설움을 만회하고자 철치부심했던 속기경기대회일이 되었다. 우리에게 배정된 방에 도착하자 파리 도착 첫날 핑승을 다짐하며 폭탄주를 호탕하게 원샷 하던 선수들의 얼굴에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다. 감독관들은 여성으로 나긋나긋하게 말씀하셨지만 사진을 찍는 우리들은 입안이 마를 정도였다. 김점동 이사가 계속 농담을 던지며

'릴렉스'를 외쳤지만 우리 대표들은 눈동자마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부동의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렇게 경기는 시작되었다.

파리 인터스테노 국제속기경기대회에는 총 7종목의 경기대회가 열림. 경기대회 참가자는 총 327명으로 이들은 한 종목 또는 그 이상의 경기대회에 참가함. 각 종목별 경기대회 참가인원은 다음과 같음.

- 텍스트 프로덕션 경기 : 228명 참가
- 텍스트 수정 : 178명 참가
- 전문 워드 프로세싱 : 114명 참가
- 스피치 캡처링 : 192명 참가
- 리얼타임 경기 : 101명 참가
- 회의록 작성(the correspondence and minute-taking) : 84명 참가
- 다국어 경기 (subscriptions to the multilanguage contest) : 35명 참가

특히 한국은 리얼타임 종목에 4인이 참가하여 김봉철 2위, 이한나 6위, 김진호 10위, 김밀알 11위 등 상위권의 성적을 기록함.

■ Intersteno IPRS meetings

하원의회에 들어가면서 철저한 검문 과정을 거치는 것은 우리 국회의사당 면회실 이상이었다. 복잡한 과정을 통과해 들어간 프랑스 하원 의사당은 박물관과 예술관을 합쳐 놓은 듯이 아름답고 웅장했다.

특히 본회의장은 마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하우스에 온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날 정도였고 섬세한 조각과 그림들로 입이 저절로 벌어졌다. 모든 방을 지날 때마다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기 바빴다.

이어서 가진 대회의실에서의 IPRS 미팅은 가장 진지하고 학술적인 자리였다. 시각장애인

의 기록방식에 대한 발제가 있었고, 네덜란드 의회의 기술적인 발전은 세세한 그림과 함께 아주 인상적으로 발표되었다.

두 번째 미팅에서는 일본의 음성인식 번문시스템에 이어서 우리나라는 「한국 속기계의 현황 및 회의록 발간실태」에 대해 발표했다.

1. 의회속기사부(IPRS) 첫 번째 미팅 – 2011년 7월 11일 월요일 09:00

▲ 프랑스 하원의회 참관

- IPRS 첫 번째 미팅은 프랑스 하원의회 참관으로 시작됨.
- 각국 의회 속기사 등 90여 명이 참석.
-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프랑스 하원의회의 본회의장 및 의회도서실 등 둘러봄.
- 프랑스 의회 기록업무 담당하는 안내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함.
- 현재 프랑스 하원의회의 기록업무는 각 9명씩 3그룹으로 구성된 기록담당자 총 27명이 기록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본회의의 경우 1인 15분씩 기록함.

▲ 주제발표

프랑스 의회 참관 후 의회 내 대회의실에서 주제 발표가 이어짐.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장애인의 직업으로서 의회 속기사(발제자 : Jenny Laval)
- 네덜란드 의회 기록담당부서의 기술적인 발전(발제자 : Matthijs Bakker, Mr Herbert Houdijk)
- 독일의 시각장애인 직업으로서의 속기사(발제자 : Gert Sandig)

2. 의회속기사부 (IPRS) 두 번째 미팅 – 2011년 7월 14일 목요일 09:30

IPRS 두 번째 미팅은 파리 시내 FIAP의 강당 Bruxelles 홀에서 있었음. 주제와 발제자는 다음과 같음.

- 일본의 자동기록 시스템(발제자 : Tutsuya Kawahara)

- 일본 의회의 음성인식을 통한 새로운 번문시스템의 전개 및 진화 & 입법과정에서 회의록과 그 가치.
- 이탈리아의 의사록과 요약본(발제자 : Fabrizio Verruso)
- 폴란드 의회 기록과(발제자 : Anna Namys)
- IPRS의 현황과 미래(발제자 : Lida Horlings)
- 한국 의회의 특징과 국회 의정기록과 업무현황 (발제자 : 조미경)

❶ 총회에 참석했던 조미경 회원이 IPRS 미팅에서 한국 의회에 관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음
❷ 컨퍼런스에서 리얼타임을 제공하는 모습

■ Conference (2011년 7월 13일)

총회 참가 준비가 늦은 관계로 우리는 발표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되어 아쉬웠다. 그래도 각국의 여러 가지 신선한 아이디어와 기술 발전 사례들을 접하게 되었고 다양한 관심사를 서로 공유하는 장이 되어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

-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열린 컨퍼런스에서 총 10명이 다양한 주제로 발표함.
-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문제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룸.
- 또한 독일의 속기교육 방식 및 브라질의 온라인을 통한 속기교육 방식이 발표됨. 이를 통해 속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전시회 (2011년 7월 10일 ~ 7월 13일)**

미국 프랑스 한국 등의 속기 기계 및 속기 프로그램 장비가 출품되어 세계 각국의 트랜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고, 기계 중앙부의 모니터가 점차 확장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현재 개발 중인 신기종이 아닌, 한국스테노의 CAS PLUSⅢ를 전시하여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

- Cité U 홈과 FIAP 홀 두 장소에서 4일간 속기 기계 전시회 개최.
- 이번 전시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프랑스, 미국 등 12개 업체에서 다양한 모양과 색상, 기능을 갖춘 첨단 속기 기계가 전시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속기 기계에 관심을 보임.
- 음성인식장치 및 시스템도 전시되었으나 기초적인 수준이고 실제 활용하기에는 많은 발전이 요구됨.

■ **총회 (2011년 7월 13일)**

총회에서는 이탈리아의 Fausto가 회장으로 당선되는 등 신임 집행부를 선출하였고, 다음 총회는 2년 후인 2013년 벨기에 겐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2013년 총회 개최지인 벨기에 겐트시 소개

-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 회장 Gian Paolo Trivulzio의 화상메시지 전달 및 회원들과 화상통화 → 모두 건강을 기원하며 기립박수.
- 비밀투표에 의해 새 집행부 선출. 선출된 신임 집행부는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되며 신임 집행부는 다음과 같음.
  - ▶ 회장 : Dr. Fausto Ramondelli
  - ▶ 부회장 1 : Jaroslav Zaviacic
  - ▶ 부회장 2 : Mark Golden
  - ▶ 사무처장(Secretary-Treasurer) : Danny Devriendt
  - ▶ IPRS 코디네이터 : Rian Schwarz-van Poppel
- 2013년 제49차 인터스테노 총회 장소 승인 : 사무처장 Danny Devriendt 씨가 벨기에 겐트(Gent)시를 소개함.
- 인터스테노 예산 사용내역 보고 및 제49차 벨기에 겐트 총회 참가비 결정.
- 정회원 가입 승인 : 영국 캐나다 스페인 미국 등

■ **시상식 및 만찬 행사 (2011년 7월 15일)**

지루하리만큼 수많은 부문의 시상이 이어지고 거의 동구권 국가의 독무대이다시피 한 환호성이 익숙해질 무렵 마침내 속기 월드 챔피언십의 하이라이트인 리얼타임경기 부문의 시상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입상자 명단에 호명될 때 세레모니를 "대~한민국!! 짝짝짝 짝짝!!"하고 언호에 이어서 박수치는 걸로 맞춰 놓았다.

그러나 막상 한국의 김봉철 회원이 2위에 호명되자 우리 모두 허를 찔린 듯 크게 환호하지 못했다. 지난 대회 우승자인 중국의 무결점속기사 왕루이가 3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입상은 물 건너간 줄 알고 허탈해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이었다. 시상대에 서야 할 1위 미국 대표도 일찌감치 자리를 뜬 상태였다.

이는 지난 47회 북경 대회에 같은 종목에 처음 참가한 후 두 번째 도전 만에, 우리나라 속기인으로는 처음으로 이룬 쾌거이다. 총 35개국이 참가한 리얼타임 종목에서 한국은 4인이 참가하여 이한나 회원(한국스테

노) 6위, 김진호 회원(한국스테노) 10위, 김밀알 회원(국회사무처) 11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시상을 모두 마친 저녁시간 휘황찬란하게 아름다운 파리 시청홀에서 어느 영화제 못지않은 화려한 드레스로 성장한 유럽의 선남선녀들과의 만찬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추억이 되었다. 비록 드레스코드를 잘못 이해해 평상복으로 갔지만 넉살 좋게 않아 꿋꿋한 자세로 스테이크를 자르는 행복한 밤이었다.

- 시상식 및 고별만찬은 약 600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파리 시청홀에서 개최됨.
- 세계속기경기대회의 각 부문별 시니어부 수상자는 다음과 같음.
  - ▶ 텍스트 프로덕션 (시니어부 일반 키보드) 1위 : Hakan Kurt (터키)
  - ▶ 텍스트 수정 (시니어부) 1위: Petra Vintrlikova (체코)
  - ▶ 전문 워드 프로세싱 (시니어부): - (체코)
  - ▶ 스피치 캡처링 (시니어부) 1위: 그레픽 부문 Zsuzsa Ferenc (헝가리), 키보드 부분 - (체코)
  - ▶ 리얼타임 경기 (시니어부) 1위: Laura Brewer (미국) *한국은 2위 김봉철
  - ▶ 회의록작성(the correspondence and minute-taking) 1위: Sylvia Beckers (독일)
  - ▶ 다국어 경기 (subscriptions to the multilanguage contest) 1위: Boris Neubauer (독일)

Ⅳ. 성 과

- IPRS 미팅에서 우리나라 의회와 의회 기록 담당 부서의 업무 현황을 소개, 발표함으로써 한국은 의회가 생긴 이후의 모든 기록을 갖고 있고 이를 중시하는 기록문화를 갖고 있음을 각국 의회 담당자에게 주지시킴.
- IPRS 미팅에서는 특히 유럽 의회와 달리 많은 속기사가 일하는 한국 의회의 특수성과 업무 집중도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를 도모함.
- 네덜란드 의회는 기록담당부서의 기술적 발전을 도모하고, 일본 의회에서는 기초적 음성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등 국제적으로 첨단기술을 접목시켜 보다 용이한 기록수단을 지향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을 확인함.
- 기록업무를 통해 장애인에게 직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독일 등 다른 나라의 실제 사례를 수집함.
- 국제속기경기대회에 두 번째 참가 만에 2위에 입상하여 우리의 리얼타임 부문 속기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우리 속기 기록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됨.

Ⅴ. 개선 및 건의사항

- 차차기의 인터스테노 총회(2015년) 한국 유치를 위한 재원 마련과 철저한 행사 준비가 필요함.
- 세계적 추세인 기록의 테크놀로지화를 위한 확고한 프로그램 개발과, 이의 실현을 위한 치밀하고 지속적인 연구 노력이 필요함.
- 대표단 구성을 조기에 완료하여 사전에 총회 참가를 위한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함.
- 행사 시작 이전에 현지에 도착하여 첫날 행사부터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총회 분위기 적응에 완벽을 기해야 함.
- 이사장은 매 2년마다 개최되는 총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지속적으로 각국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
- 국제부는 IPRS에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각국 의회 기록관계자와의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는 등 교류 활성화가 요구됨.
- 2013년 벨기에 총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보다 발전된 기록업무에 대한 발표가 있어야 할 것임.
- 협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한 각국의 최신 자료 수집 및 정보 교환을 보다 활발히 해야 함.

Ⅵ. 마치며

인터스테노 친영부들과 함께 기념촬영 참석

작년 파리에서의 인터스테노 총회 기간 중에는 '프랑스혁명기념일 축제'가 겹쳤다. 7월 14일은 프랑스 최대의 국경일이다. 13일과 14일의 축제 기간 모든 거리가 뜨거운 축제장으로 변해 콘서트와 퍼레이드, 불꽃놀이로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단지 전통에만, 예술적 분위기에만, 볼거리에만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세세한 요소가 모여 빛을 발하는 다채로운 조합이 돋보이는 게 바로 파리가 지닌 강점인 것 같다. 에펠탑 위에 터지는 불꽃놀이를 보며 우리도 전통과 첨단을 아우르는 속기와 기록 분야의 불꽃놀이를 펼쳐야 한다고 생각해 본다.

제48차 인터스테노 총회를 다녀와서 | 이혜경

20년
강산을 두 번 변화시키는 시간
나는 그렇게 속기사로서, 공무원으로서 지내왔다.

인터스테노
많이 들었던 단어였지만 정작 나는 인터스테노에 대해 아는 게 없다.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실체를 파악하리라.

서먹하다.
아름도 낯설고 아는 얼굴도 없다. 큰일이다.
그래도 단장님이 따뜻이 보듬어 주신다. 다행이다.

그리하여 오른 파리행
지치고 피곤타.
고속버스 5시간, 비행기로 20시간이 넘는
꼬박 만 하루가 더한 시간을 다리도 못 펴고...궁시렁궁시렁...
정신이 혼미.

파리에 도착해서 숙소를 배정받아 휴식을 좀 취하고 나니 조금은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듯한 기분.

오프닝

파리에서의 첫 일정으로 Citè U Hall에서 열리는 오프닝 행사
일단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어서일까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연신 인사를 건네고 있다.
프랑스 전통춤으로 흥을 돋우고, 와자지껄하다.
일단 자리를 잡고서 의자에 앉으니 각국의 대표께서 자국의 국기를 들고 나와 인사를 한다.
대한민국이 불리자 이경식 이사장님께서 태극기를 들고 나와 인사를 하신다.
나는 왜 태극기만 보면 애국심이 불끈불끈 솟을까……

다음날 1차 회의, 2차 회의는 그야말로 나는 멀뚱멀뚱 그냥 대충 쓱 훑고만……
통역하느라 애쓰신 조미경 선배님 고생 많으셨네요.

국제속기경기대회

속기경기대회가 7종목으로 치러지는 줄이야……
내가 알고 있는 경기대회는 리얼타임이었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속기인들은 요즘말로 속기의 신, 속기의 전설이라 불리는 대한의 남아였다.
예로부터 속기는 여성이 잘했구먼, 여하튼 대단한 손이시더이다.

인터스테노 IPRS meetings

프랑스 하원의회를 참관할 수 있었다.
그룹별로 나누어서 본회의장, 도서실 등을 둘러보았는데 9명씩 세 그룹으로 구성하여 기록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본회의 같은 경우 1인 15분씩 기록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뭐 더 궁금해도 짧은 실력으로 문답이 도저히 불가능하여 포기. 에고고...

마지막으로 시상식과 만찬행사.

만찬행사는 파리 시청홀에서 개최되었는데 아주 고풍스럽고도 아름다운 홀에서 펼쳐졌다.
그래도 우리 김봉철 대표가 리얼타임 경기에서 2등을 해 주어 축하 축하.
다들 예쁜 드레스를 입고 온 것을 보고 우리 젊은 친구들 부러운 시선을 보낸다.
호텔 가서 다시 갈아입고 올 테세다.

인터스테노 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중에 여러 생각들이 교차된다.
그토록 되고자 오매불망했던 속기사의 길이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렇게 그냥저냥 직업의 수단으로 전락되고 만 것이다.
그 많던 열정들은 다 어디로 가버린 걸까?

지방에서 일을 하다 보면 좀 소외되고 멀어져 가는 것은 어찌할 수 없다.
그러다 보면 무심해지고 급기야 무관심으로 일관하게 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좀더 자극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다.
모자라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한다는……
옛날 그때의 열정을 다시 한번 쓸어 모아 내 안에서 불을 지펴야 한다.

이번 인터스테노 총회 참관은 속기에 대한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 보게 하는 경험이었다.

프랑스 인터스테노 보고서

| 김밀알

두근두근 시험 전 준비 그리고 합격의 행운

"자, 이번 속기경기대회에서 통한 사람은 파리 국제속기경기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계장님의 전달사항 한마디는 나의 가슴을 몹시 설레게 만들었다.

베이징 대회 때만 해도 나는 국회 준비생이어서 출전할 여유가 없었지만 이번 기회로 글로벌한 무대에서 설 수 있다는 자긍심과 보너스로 프랑스 여행을 갈 수 있다는 호못한 사실은 나를 흥분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욕심만 굴뚝 같을 뿐, 야속하게도 4월 임시국회는 27일 보궐선거로 흐지부지될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각종 법안 통과를 앞두고 3개 상임위를 담당하는 우리 계의 일거리는 쌓여만 갔다.

하지만 다행히 시험 전 연습할 수 있는 날짜가 내게도 조금 생겼다. 연가를 내어 어린이날부터 연달아 석가탄신일까지 쉴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매일 나가지는 못 했지만 이틀은 나가서 바짝 연습을 하였다. 연습을 해 본 결과, 나는 쉬운 내용의 시험도 오탈자를 남발하며 우리 학원 다른 출전자들에 비해 뒤처지고 있었고 파리는 물 건너가는 듯했다.

다음 날 드디어 국회 의정관에서 최종 선발시험이 있었다. '조사 한 자까지 한 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겠다'는 마음으로 속기했는데 운 좋게 낭독이 끝날 때까지 저주의 손떨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도 워낙 짧은 연습기간과 신의 손이라 불리는 자막방송 속기사들이 버티고 있어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다.

시험이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나 일찍 발표가 났다. 과장님께서 갑자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이번 한국 대표로 인터스테노 대회에 출전하는 4인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아주 서프라이즈한 소식을 전해 주셨다. 사람들에게 축하한다는 인사를 받을 때면 우쭐해졌지만 그런 기분도 잠시, 내게는 6월 임시국회가 기다리고 있었다. 수북이 쌓이는 원고를 보며 연습에는 손도 못 대고 있는 나는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다.

피리의 새로운 동행자들 그리고 첫 관광지인 시크레쾨르 성당과 몽마르뜨

출발 4일 전 부랴부랴 일을 끝마치고 시간은 마치 새처럼 훨훨 날아 출발 하루 전으로 다가왔다. 짐 챙기는 데 요령이 없던 나는 전날 새벽에서야 잠이 들었지만 아무래도 대사를 앞두고 있다 보니 알람이 울리기 직전 정신이 들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정란 계장님께서 먼저 와 계셨고 얼마 되지 않아 우리 인터스테노 일행들은 다 모였다. 일행 중에는 뉴 베이스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릭셔리하게 등장하신 신은경 서초동 속기사무소장님, 경남도의회 이혜경 속기사님, 그리고 한 배를 타고 출전하게 될 다른 세 명, 봉철 씨는 같은 학원이라 말만 몇 번 해 본 사이, 자막방송의 이진호 씨, 이한나 언니 모두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다. 약간 서먹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처음의 걱정과는 달리 다들 '속기'라는 연결고리로 이 여행에 동참한 사람들이라서일까, 신기하게도 우리는 알고 지냈던 사람들처럼 친해지는 데 얼마 걸리지 않았다.

한국 시간으로는 9시 35분 출발이지만 파리 드골 공항에는 현지 시각 2시 10분경에 도착했다. 무려 12시간을 비행하고 내리니 뭔가 피곤한 느낌, 바로 숙소로 들어가 쉬면 딱 좋으련만 우리보다 7시간이 더 느린 파리는 이제 한창 활동시간이라는 것! 그러나 그런 기분도 잠시, 서울의 성냥갑 같은 현대식 건물에 익숙해 있던 나는 화려한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들이 즐비한 도로를 보며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었다.

첫 번째 관광지는 시크레쾨르 성당이었는데 버스에서 내리니 인파가 상당했다. 프랑스는 휴가가 법적으로 한 달인데 이제 휴가철이 시작돼서 그렇다고 했다. 시크레쾨르 성당 앞은 거리의 악사들과 비보이들의 공연, 그걸 지켜보는 젊은 관중들로 붐볐고 나는 그 자유로움에 빠져들고 있었다.

인증전시장인 IPRS 참가 등록 현장 그리고 대단했던 루브르 박물관

7월 10일 둘째 날, 아침 일찍 인터스테노 참가 등록 신청을 마치기 위해 파리 유니버시티의

Citè-U홀에 모였다. 영어 이름과 국적을 대니 필요한 몇 가지 물품을 나눠주었다. 행사 참석에 있어서는 신분증과도 같은 참가인 명찰, 인터스테노의 흰 티셔츠와 'PARIS'라고 쓰여 있는 핑크색 쇼퍼백을 받았다.

홀 1층에는 등록 신청을 하러 온 여러 나라와 다양한 인종의 속기사들이 있었는데 그제야 '아, 내가 국제대회에 출전하는구나' 하는 실감이 났다. 또 이렇게 각기 언어도 국적도 다른 많은 속기인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는 인터스테노 대회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김점동 이사님과 이경식 이사장님은 프랑스나 기타 다른 외국 속기사들과 명함을 주고 받으셨고 중국의 '탕 커랑'이라고 하는 북경 속기협회 회장이자 중국 대표단 단장과는 저번 베이징 때 친분이 있으셨는지 환하게 웃으며 반갑게 포옹하셨다. 또 우리에게 중국 속기사들이 먼저 말을 걸어와 친해지게 되었는데 역시 한류가 요새 대세이긴 하나 보다. 이름이 한국식 발음과는 달라 알아듣는 데 애를 먹긴 했지만 대장금의 이영애, 슈퍼주니어, 장나라 등도 잘 알고 있었고 어설픈 영어로 우리는 천한 친구처럼 깔깔거리며 한 시간가량 서서 수다를 떨며 함께 사진을 찍었다.

참, 저번 베이징 경기대회 때 스피치 캡처링 부문에서 100%를 속기한 중국 챔피언 왕루이도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중국 국가 부주석 전담 속기사라고 했다. 역시 대단하다는 생각과 함께……

참가 등록을 마친 후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루브르 박물관에 도착했다. 루브르 박물관 앞의 유리 피라미드 앞에서 인증샷을 남기고 오디오 가이드를 목에 걸고 안으로 들어갔다. 오디오 가이드 장치가 목에 있었지만 우리는 이미 유명 작품들을 사진 찍는 것에 목숨을 걸었다. 그도 그럴 것이 38만 점 이상 되는 대작들을 눈에 담아 오기조차 힘들었으리라.

교과서나 TV에서 많이 보는 작품 중 하나는 밀로의 비너스상, 고대 그리스상인 니케상, 나폴레옹의 대관식 등이 있었고 그 이름도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앞에는 그 명성에 걸맞게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다. 그림의 훼손을 우려해서인지 조금 높은 위치에 거리를 두고 보게 돼 있었고 생각보다 그림은 작았다.

이런 세기의 명작은 플래시에 의한 손상 때문에 전품은 창고에 보관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살짝 의구심이 들긴 했지만 내가 '모나리자'를 직접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감격스러웠다.

루브르 박물관 관람을 마친 후 프랑스에 오면 꼭 먹어 봐야 한다는 달팽이 요리를 먹었는데 마치 커다란 우렁을 빼먹는 맛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다.

성황리에 마친 전시회와 세느강 유람선 관람

우리는 오후 2시부터 각 나라별 속기 기계 전시회가 있어 다시 Citè-U홀로 갔다. 자막방송의 송영훈 씨와 이대섭 실장님께서 미리 오셔서 열심히 기계를 설치 중이셨고 거의 개발 완성 단계라는 우리의 스마트 CAS 기계와 자금의 신기계 CAS가 입구 바로 앞에서 첫 선을 보였다. 다른 나라의 많은 속기사들이 몰려와 우리 기계의 속기 방법에 대해 질문을 던졌고, 통역사 분께서 초성, 중성, 종성을 한꺼번에 눌러 속기하는 방식을 설명하셨더니 신기해하였다.

여러 나라가 있었지만 대회 참가국의 수만큼 전시하는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프랑스와 미국의 속기 기계도 인기를 끌었다. 일단 크기가 작은 데서 느껴지는 가벼움과 피아노처럼 귀여운 외관으로 어필을 했으리라. 하지만 '저런 적은 숫자의 키로 어떻게 활용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어 나중에 찾아보니 프랑스의 기계는 보조키도 없고 바식키가 빽빽하여 치는 게 힘들다고 하였다. 또 미국에는 총 다섯 종류의 속기 기계가 있다고 했다. 대부분 스테노타이프라이터 방식으로 겉보기에는 글자가 보이는 모니터창과 단출한 자판 수는 프랑스와 유사해 보였다.

이에 반해 우리 스마트 CAS기계는 바식키로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키의 배열이 숫자키와 한글키가 손의 최소운동 반경 내에 있어 피로를 최소화한다니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더 좋은 것 같다.

전시회가 끝나고 개막식에서는 각 나라별 전통춤과 공연이 성대하게 열렸고 나중에 참가국을 호명하면 각국 대표가 국기를 들고 나오는 순서가 있었는데 이경식 이사장님이 나오시자 우리 팀 역시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기 위해 누가 쳐다보는 말든 있는 힘껏 환호성을 질렀다.

모든 공식적인 행사를 마치고 어둑어둑해질 무렵 우리는 유람선을 타고 세느강변을 달렸

다. 한강보다도 훨씬 좁은 이 세느강을 얼마나 타겠나 싶었는데 노틀담 성당, 에펠탑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을 반환점 삼아 다시 돌아오는 데 거의 한 시간 반이 걸렸다. 개인적으로 기억할 게 많은 파리여행 중 가장 좋았던 순간을 몇 개 꼽으라면 이 세느강 유람선 코스를 꼽을 정도로 시내를 한 바퀴 도는 동안 파리의 강바람은 너무나 시원했고 매시 정각부터 10분 동안 전등쇼화를 하며 반짝반짝 발광하는 에펠탑은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황홀했다. 또 다른 유람선과 스쳐 지나갈 때는 사람들이 서로 환호성을 지르며 손을 흔들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나 할 정도로 어리둥절했지만 어느새 나도 함께 마주보고 환호하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프랑스 의회 방문과 노틀담의 꼽추 노틀담 성당 관람기

셋째 날, 우리는 프랑스 의회를 방문하여 조지 클루니와 똑 닮은 인솔자 분을 따라 의회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프랑스는 대통령제인 동시에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어 우리가 방문한 곳은 프랑스 국회가 아닌 하원의회라고 했다.

우리는 프랑스 의회의 도서관, 상임위원회 회의장, 본회의장 등을 차례로 방문하였는데 역시 괜히 프랑스가 아니었다. 어딜 가나 내부가 베르사이유 궁을 방불케 하리 카라 할 정도로 우리가 설명에 집중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본회의장 속기사석에서 다들 한 번씩 앉아 보고 사진 촬영을 하는 영광을 가졌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프랑스 본회의 속기록은 요약회의록과 전문 회의록으로 나뉜다고 했다. 요약 회의록은 본회의 질의 후 2시간 반 만에 나오는데 몇 시간 후 차회 회의에서 발언이나 답변을 해야 할 장관이나 의원에게 유용하게 쓰이며 기자나 공무원에게도 제공된다고 했다. 우리 국회도 본회의는 다른 회의록에 비해 신속하게 발간되긴 하지만 바로바로 요약 회의록이 발간된다는 점이 색다르게 다가왔다.

프랑스 의회 대회의실에서 주제발표가 열렸는데 장애인의 직업으로서 의회 속기사, 네덜란드 의회 기록부서의 기술적 발전, 독일의 시각장애인 직업으로서의 속기사에 대한 것이었다. 영어, 불어, 독어로 한 번씩 했는데 내용이 상세한데다 알아들을 수 없는 외계어들이 범람하여 점점 졸음이 쏟아졌지만 인내심을 갖고 경청하였다.

여러 언어적 피로감으로 다소 길게 느껴졌던 IPRS 미팅 후 우리는 프랑스 혁명의 장소인 바스티유 광장과 백남준 아트센터가 있다는 퐁피두 문화센터를 둘러본 후 노틀담 대성당에 갔다. '노틀담'은 불어로 성모마리아를 의미한다고 했다. 입구의 출입문은 성모마리아의 문, 최후의 심판문, 성녀 안나의 문으로 3개가 있었다. 그 중 우리는 가운데 문으로 들어갔다. 안에 들어가니 미사를 드리는 사람과 관광객들이 반반 섞여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 사진 찍기가 조심스러웠다. 일단 내가 다니는 성당의 수십 배 되는 그 규모에 한 번 놀랐고 이런 정교한 건축양식이 1163년에 지어졌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다. 정면에 매달려 있는 두 개의 종탑을 보니 노틀담의 꼽추가 울렸다던 종소리가 갑자기 듣고 싶어졌다.

오늘의 마지막 일정으로 파리의 상징 에펠탑이 남았으나 내일은 결전의 날인 경기대회가 있는 관계로 줄 서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까 봐 볼까 말까 다수결에 부쳤다. 의견이 좀 나뉘었지만 가이드 선생님께서 지금 바로 가면 가장 줄이 짧을 때라고 하셔서 우리는 그 말을 믿고 간 결과 40분 정도 줄을 선 후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었다. 그나저나 가까이서 보니 왜 이렇게 철조 구조물이 큰 건지, 막상 그 앞에 가니 사진 한 컷에 다 잡기가 쉽지 않았다. 2층까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전경을 보았는데 드넓은 파리 시내의 전경이 한 눈에 다 보이는 게 시원한 바람과 더불어 정말 예술이었다.

그날 우린 10시쯤 숙소에 들어왔다. 한나 언니와 나는 좀더 늦게까지 연습하고 싶었지만 내일을 위해 깔끔하게 한 번 김점동 이사님의 낭독을 연습하고 주의사항을 되새긴 후 깊은 잠으로 빠져들었다.

국제속기경기대회 출전, 결전의 날이 밝다

드디어 D-day다! 어김없이 날은 밝았고, 나는 하느님께 필요할 때만 찾게 돼서 죄송하지만 꼭 잘 보게 해 달라며 간절히 기도를 올렸다.

필승을 다짐하며 버스에 올랐고, 시험은 2시였다. 이곳에서 중국 친구들과 두 번째 조우하였고 '파이팅'이라는 말로 서로 진심어린 격투를 벌었다.

시험 시작 1시간 전쯤에야 들어갈 수 있었는데 노트북과 기계를 설치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금방 시험시간이 다 돼 버렸다. 명찰을 단 외국인 감독관들이 시험실에 입실했고 얼마 안 되어서 낭독파일을 틀어 주셨다. 시작 전 연습낭독 1분 하고 시험낭독을 바로 시작한다는 말을 해 주었지만 나는 긴장한 탓인지 그 말은 못 듣고 연습낭독으로 착각한 채 계속 속기를 하였다. 익숙한 김점동 이사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조금 헷갈리는 단어들이 있긴 했지만 속도나 내용 면에 있어서 많이 어렵지는 않았다. '연습낭독이 왜 이리 길지?' 하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하며 시험이 끝난 후에야 시험낭독이었다는 것을 알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앞의 연습낭독까지 안 지우고 이어서 속기한 데다 속기 중 시간이 남았지만 굳이 수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내 저장 차례까지 기다렸다가 조미경 선배님께 이어서 속기한 연습낭독 부분은 삭제할 수 있게 요청해 달라고 설명드렸다. 분위기상 다행히 그 부분은 받아들여질 듯 해 보였지만 너무나 허무하게 시험이 끝나버린 후 한동안 멍연작실해 있었다. 시험에 대한 중압감 때문일까 기대에 못 미친 자신에 대한 실망감 때문일까. 봉철 씨, 한나 언니, 진호 씨도 시험이 끝난 후 우리는 물먹은 스펀지마냥 축 처진 채 서로 더 못 봤다는 말로 위로를 하고 있었다.

으리으리한 베르사이유 궁전 관람 후 점심으로 삼겹살 집에 가기로 돼 있는데 곧 우리의 점수를 알고 계시는 이사님과 심사위원과 통역을 맡으셨던 정란 계장님, 조미경 선배님을 뵈어야 한다. 역시 선수는 일심동체라고 우리는 구석 한 귀퉁이에 냇이 테이블을 잡고 소심하게 앉아 있었다.

그런데 김점동 이사님께서 건배사를 하시며 "우리 선수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생각보다 다 잘해 줬어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이제 걱정 말고 오늘 편히 쉬어요" 하시며 우리의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 주셨다.

프랑스 독립기념일, 트램을 타고 불꽃놀이를 보러 가다

여섯 번째 날, 어느덧 파리와 작별할 시계의 초침은 째깍째깍 달리기고 있었다. 마침 그날이 프랑스의 독립기념일이라 1년에 한 번 에펠탑 부근에서 성대한 불꽃놀이를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에너자이저인 나와 한나 언니가 안 갈 리 없다. 우리는 씩씩하게 이사님과 계장님들을 따라 밤거리를 나섰다. 거기서 해 본 색다른 경험은 직접 표를 끊고 트램을 타 보았다는 것이다. 트램의 생김새와 구조는 지하철, 다니는 곳은 지상의 버스 정류장 같은 곳이었다. 우리가 내리니 이미 도로에는 차와 사람들로 가득 찼고 헬기가 각 방송사로 이 광경을 생중계하고 있었다.

길거리에서 미아가 되어 흑인들에게 끌려가면 절대 안 된다고 하도 가이드가 겁을 주어 계장님들 뒤만 졸졸 따라다녔던 것 같다. 인파가 너무 몰려 에펠탑 근처가 아닌 에펠탑이 보이는 건너편 다리에서 봐서 그런지 "쳇, 이의도 불꽃놀이가 더 예쁘네" 하며 콧방귀를 뀌어 줬다. 하지만 마지막 하이라이트 10분과 또 비장의 무기인 에펠탑 반짝반짝 점등식은 역시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게끔 했다.

영광스러웠던 그 시상식 현장, 스스로에게 다짐

파리에서의 실질적인 마지막 날, 우리는 쁘렝땅 백화점에서의 쇼핑시간을 갖고 시상식장이 있는 파리 시청으로 향하였다. 시험 결과에 대해 이사장님이나 이사님께서 워낙 말을 아끼시다 보니 결과는 예측불가였고 사실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다.

홀에 들어섰더니 이게 웬일인가, 모두들

파티복장으로 드레스 코드라도 맞추고 온 듯 청룽영화제를 방불케 했다. 남자들은 정장에 나비넥타이, 여자들은 엘프 같은 외모에 차려입은 드레스. 순간 문득 '아, 여긴 프랑스였지' 하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고 평상복을 입고 온 내 자신이 갑자기 너무 초라해 보여 호텔로 돌아가고 싶어졌다. 하지만 우리 팀에게 다행히 위로가 되었던 건 언제나 일관성 있게 빨간 티셔츠로 통일하고 나타나는 중국팀이었다.

35개국에서 무려 600명 정도의 속기사가 다양한 종목에 출전했다 보니 시상식은 점점 길어졌고 호명된 나라의 환호성이 시청홀을 가득 메웠다. 한참 시상식을 보던 중 나는 내 핸드폰이 없어진 걸 깨달았고 계장님과 아까 갔었던 식당에 다녀왔지만 안타깝게도 찾지 못한 채 정지만 시킨 후 다시 시상식장으로 돌아왔다.

핸드폰을 찾으러 갔다 오는 사이 봉철 씨의 목에는 은메달이 걸려 있었고 손에는 은색 트로피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우리 일행들은 상기된 표정으로 기념촬영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와우! 리얼타임 속기 부문에서 미국의 로라 브레어와 간발의 차이로 2등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이런 국제무대에서 코리아가 호명되는 순간 상상만 해도 온몸에 전류가 흐르지 않았을까? 모두들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한결 가볍게 해 준 봉철 씨에게 자랑스럽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곧 시상식장에서 나의 성적표를 받아 보게 되었는데 순간 '헉' 했다. 결과가 생각만큼 저조하진 않았지만 순위, 오탈자까지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것이었다.

여기서 얻은 교훈이 있다. 앞으로 어떤 큰 대회든 떨지 않고 평소처럼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연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시험 도중에 애를 먹었던 단어들, 발음은 비슷하지만 뜻은 판이하게 다른 단어들을 바로 구분해 낼 수 있는 능력 또한 키우기 위해서는 평소 번문을 하면서 수상한 단어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고 뜻을 확실히 파악해 두는 습관을 들여야겠다는 것이다.

김봉철 씨가 마지막으로 시상식장 연단에 올라 트로피를 치켜드는 모습을 지켜보며 만감이 교차하면서 많이 부러웠다고 하면 내 마음이 다 표현이 되려나? 얼마 전만 해도 다음 대회는 생각해 보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욕심이 생겼다. 다들 같은 마음이겠지만…… 2년 후 벨기에 겐트에서 열리는 속기대회에서는 꼭 메달을 걸고 수상소감을 쓸 수 있게 되길 고대해 본다.

한국 땅으로 돌아온 지 정확히 12일째, 이제 나는 현실로 돌아왔고 시차적응도 완전히 되었지만 프랑스에서의 기억들은 아직 나를 놔 주지 않고 있는 듯하다. 13일 전 기억들이 마치 아득한 꿈처럼 느껴진다. 그만큼 즐거운 여행이었던 것이다.

끝으로 여행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함께해 주신 신은경 속기사무소장님, 경남도의회 이혜경 속기사님, 그리고 관광도 별로 못 하고 고생하셨던 이대선 실장님, 송영훈 씨, 또 한국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 주시기 위해 오신 이경식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앞뒤에서 애쓰신 속기 대표팀 전원께 감사드리며 이 글을 마친다.

총회의 의사록 Ⅱ
(상법 제373조를 중심으로)

김점동 (대한속기협회 이사, 동우S&C 대표)

제4장 의사록 작성

이상에서 살펴본 의사록의 작성 이유와 쓰임새 등에 비추어 간략하면서도 그 내용을 보고 어느 정도 경과요령과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의사록 작성에 관해 의사록의 본문과 각주를 통해 그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절 의사록 작성의 실례

한국ㅁ주식회사[1]

제30기 정기[2]주주총회 의사록[3]

1. 일시 : ㅁ년 ㅁ월 ㅁ일 (금) 오전 10시

2. 장소 : 서울특별시 ㅁ구 ㅁ동 ㅁ번지 본사 3층 대회의실[4]

3. 출석주식수[5]

1) 회사의 명칭은 후단에도 기재되나 머리에 둠으로써 구분이 용이하다.

2) 임시주주총회인 경우 "임시", 종류주주총회인 경우 "종류"로 기재한다.

3) 임시주주총회일 경우 연도와 차수(次數)를 기재하여 구분이 용이할 수 있게 한다. 예) "ㅁ년도 제1차 임시주주총회". 상법 제372조에 의한 연회나 계속회의 결의 후 개최된 경우는 후단에 "연회", "속회(계속회, 속행)"을 기재한다.

4) 일시, 주소와 회의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시간과 장소가 변경된 경우는 예정 시간과 장소, 실행시간과 실행장소를 따로 기재한다.

5) 출석주식수에는 일반적으로 주주수를 기재한다. 주주수의 기재는 법정화되어 있지 않으나 주주총회는 역시 사람의 모임이며 그 규모를 짐작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의사록의 작성 이유에도 합당하고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으며 차기 총회 장소준비를 위해서도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 이때 본인과 위임의 주주수와 주식수를 별도로 기재하는 것도 좋은 기재 방법이다.

발행주식총수 : 1,000만주(총주주수 200명)

의결권주식총수 : 990만주(자사주 10만주, 총주주수 199명)[6]

출석현황 : 55명에 700만주(위임포함, 오전 10시 현재, 증권예탁결제원 의결권 행사 주식 200만주 포함)[7]

출석률 : 70.70%

정관 제21조에 의거 대표이사 박총명 사장이 오전 10시 정각에 의장석에 등단, 국민의례에 이어 총무부장 전천후가 상기와 같이 출석주식수를 보고하다.[8]

박총명 대표이사의 개회선언[9]과 인사말씀[10]에 이어 총회의 보고사항에 들어가다.

- 감사보고 : 노방심 감사(위원장)가 제30기의 회계 및 업무에 관한 감사실시 결과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안 및 서류가 법령과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없으며[11] 정확, 타당하게 작성되어 있음을 진술하다.[12]
-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 노방심 감사(위원장)(또는 대표이사)이(가) 제31기부터 제33기까지의 외부감사

6) 상법 제37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권이 부활된 우선주가 있을 경우와 상법 제530조의3 제3항에 따라 회사분할을 승인하기 위한 의안에서는 우선주도 의결권이 있으므로 그 의결권수를 합산하고 근거와 그 내용이 우선주임을 기재한다. 의결권이 일시적으로 제한된 자기주식(상법 제369조 제2항), 상호보유주식(상법 제369조 제3항), 특별이해관계에 있는 주식(상법 제368조 제4항), 감사선임결의에 있어서의 제한 주식(상법 제409조 제2항), 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 해임결의에 있어서의 제한 주식, 또는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상법 제542조의 12), 은행법 제16조 제3항에 의한 제한 주식, 공정거래법 제11조에 의한 제한 주식,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한 제한 주식이 있을 경우 이를 주주명과 근거, 주식수 등을 기재한다.

7) 증권결제예탁원에 의결권행사를 요청한 경우 그 수를 기재한다. 또한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관에 규정한 경우 이를 밝힌다. 총회가 끝날 때까지 의결권수의 변동이 전혀 없으면 보고시점의 의결권수가 표결시의 의결권수가 되나, 복잡한 총회의 경우는 주식수 보고 이후에도 본인 주주는 언제든지 입장할 수 있고, 또 위임하지 않고 귀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표결 시에 출석의결권수를 재확정한다.

8) 주주총회 진행순서를 의장이 먼저 등단하여 개회를 선언하는 방식이 있으나 모든 회의체는 개회를 선언하기 전에 먼저 성원보고(주총에서는 주식수 보고)가 선행되는 것이 관례이고 합리적이므로 성원보고 전에 개회를 선언하는 것은 좋은 예가 아니다.

9) 1995년 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가 배제되었으므로 전에 사용하던 "총회성립선언"이란 용어가 어색해지고 이 총회의 의안 전부를 결의할 수 있는 요건(의결정족수)이 되었는지를 밝히고 "개회선언"을 한다. 주주총회를 개최한 측의 입장에서는 의사정족수가 없기 때문에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않았더라도 일단 총회를 개회할 수는 있으나 의결을 할 때는 의결정족수를 갖추어야 한다. 국회의 경우는 의사정족수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출석하면 개의할 수 있다(국회법 제73조 제1항).

10) 인사말씀은 법정화되어 있지 않은 순서이나 일반적으로 인사말을 통해 주주 및 관계자의 참석에 대한 감사표시와 영업의 경과 및 성과, 회사가 대처할 과제 등을 보고하므로 영업보고의 핵심내용과 유사하여 영업보고를 대신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인사말을 겸한 영업보고와"로 기재하고 영업보고 순서의 기재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11)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447조의4 제2항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12) 감사(감사위원회) 전부가 불출석하였을 때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a. 유인물에 감사보고를 기재 · 배부한 경우 "감사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다." b. 의장이나 임원이 대독한 경우 "감사보고는 의장(또는 이사 이감독)이 대독하다."라고 대독한 자를 표기한다. 주주제안이나 집중투표의 요구가 있은 경우 그 경과와 내용도 기재한다.

1) 출처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인으로 ㅁ회계법인을 선임하였음을 보고하다.[13]

- 영업보고 : 의장의 인사말씀과 배포된 유인물(제30기 영업보고서)로 대신하고 다음 순서로 들어가자는 윤대신 주주의 동의에 주주 전원이 찬성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다.[14]
- 이익에 의한 주식소각 내용보고 : 대표이사가 ㅁ년 ㅁ월 ㅁ일까지 총 50만주를 1주당 9,800원, 총 49억원에 취득하여 주식소각을 완료하였음을 보고하다.
-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보고 : 대표이사가 회사와 최대주주와의 거래내용에 대하여 보고하다.

이어서 회의목적사항 심의에 들어가다.

제1호의안 : 제30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15] 승인의 건[16]

- 의장 : 제1호의안을 상정하다.

(제안설명)[17] 배부한 대차대조표의 내용을 참조해 줄 것과 금기 매출액 1조 9,300억원, 영업이익 1,500억원, 당기순이익 1,830억원을 시현하여 현금 10%(또는 주식 5%)의 배당률을 제시하고 주주들의 심의를 구하다.

- 최배당 주주 : 제안설명과 같이 집행부가 재무제표 등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 내기에는 더 좋은 실적을 거둬 많은 배당을 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제1호의안은 집행부가 제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하다.

이에 출석주주의 재청이 있다.[18]

13) 외부감사인 선임보고는 대표이사인 의장이나 외부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장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유고시 감사위원중 1인)이 보고할 수 있다.

14) 영업보고를 의장 또는 담당이사가 직접한 경우 "의장(또는 이사 이승태)이 직접 Presentation으로 영상물을 곁들여 상세히 보고하다."와 같이 기재한다. 영업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이 의사진행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 요약기재한다.

15) 결손인 경우 "결손금처리계산서(안)"으로 기재한다. 통지상의 착오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으로 통지한 것을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승인의 건"으로 바로잡을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하고 의안명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으로 기재한다.

16)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각각의 안건으로 통지하였으나 동시에 상정하여 심의한 경우는 다음 줄에 언이어 의안명 표시를 한다. 의안명을 "재무제표 승인의 건"으로 통지 및 공고하고 이를 풀어 의안명으로 한 경우 통지 및 공고한 대로 의안명을 기재한다.

17) 제안설명이 있은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 제안설명이 없더라도 의안의 내용을 대략 알 수 있도록 최소한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배당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18) 상정-제안설명-동과동의-주주의 재청이 있은 후에 질의응답이나 찬반토론이 있는 경우 의사진행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 요약기재하고 일반적인 내용은 "질의응답이 있은 후 이의여부를 물어", "찬반토론이 있은 후 표결을 실시한 결과" 등으로 기재한다. 이와 반대로 질의응답이 있은 후에 동과동의-주주의 재청이 있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 의장 : 원안 승인 통과에 대한 이의여부를 물어[19] 이의가 없으므로[20] 제1호의안이 보통결의 요건을 갖추어[21]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제2호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 의장 : 제2호의안을 상정하다.

(제안설명) 별첨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주주의 심의를 구하다.

〈별첨…정관변경(안)〉[22]

- 신정관 주주 : 변경(안)이 회사와 주주들의 발전과 권익을 위한 것이어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다.

이에 출석주주의 재청이 있다.

- 의장 : 원안 승인 통과에 대한 이의여부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23] 제2호의안이 상법 제434조의 요건을 갖추어[24]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25]

19) 참고 : 국회법 제112조(표결방법) 제3항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전자투표) 또는 제2항(기명 · 호명, 무기명)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20) 주주로부터 이의가 있다고 한 경우 그 이의가 단순히 질문을 더 하고 싶은 것이면 발언을 허용하였을 것이고 그 질의의 내용이 의사진행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경우 요약기재한다. 이의가 반대로 이어질 경우 표결 내용을 기재한다. 표결이 있은 경우 표결시의 의결권수 확정방법, 표결방법과 찬 · 반 · 기권 · 무효수를 기재하고 그 수의 비율도 기재한다. 예) "표결에 참가한 주식의 총수를 출석의결권주식수로 확정한 후 서면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600만주(85.71%), 반대 70만주(10%), 기권 및 무효 30만주(4.29%)로 집행부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이때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임은 굳이 기재하지 않아도 그 요건에 달해 있으므로 충분하다.

21) 다른 표현으로는 만장일치일 경우 "만장일치로",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과 의결권있는 출석주식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관계법령의 요건을 갖추어", "상법 제368조에 의거", "찬성다수", "다수의 찬성으로" 등으로 기재한다. "만장일치"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는 설이 있으나 결의가 만장일치로 이루어졌고 의장도 실제 그렇게 선포를 하였다면 의사록에는 만장일치로 기재함이 마땅하다.

22) 정관변경 내용이 간단한 경우 본문에 삽입한다. 정관변경에 대한 주주제안이 들어와 의안으로 상정하였을 경우 2호의안에서 동시 상정 심의하면 집행부안과 주주제안의 내용을 기재하고, 동의의 본질이 달라 각각의 안으로 다루었으면 작은 제목으로 분리하여 따로 다루고, 주주제안자의 제안설명이 있은 경우 그 내용의 요약, 표결이 있은 경우 표결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다.

23) 표결이 있은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에 관한 상법규정에는 없으나 의사록 작성의 기본취지상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는 것이 좋다. 주주총회에서의 반대자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증거자료와 의사록 작성의 공정성, 반대주주에 대한 의결상의 신뢰확보를 위해 중요하다. 결의의 성립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주식수를 집계하는 방식의 표결인 경우 찬성주식수가 결의요건에 달한다고 발표하는 순간이 결의의 성립시기이다.(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료 참조) 정관에서 이사수를 증원하였다면 이를 바탕으로 이사선임 의안에서 그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액면미달 주식의 발행 조항이 가결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그 의안을 다룰 수 있다.

24) 다른 표현으로는 만장일치일 경우 "만장일치로", "특별결의요건을 갖추어",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과 의결권있는 출석주식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계법령의 요건을 갖추어" 등으로 기재한다.

25) 총회장에서의 반대는 없고 사전 반대가 있는 경우 : "ㅇ의장 : 이의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해 사전에 반대 및 기권 의사를 표시한 ㅇ만 ㅇ주를 제외한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제2호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외국인 등", "외국인 ㅇ외 ㅇ명", "누구 · 누구외", "서면결의에 의한 의결권행사서에 의한 반대(기권)" 등으로 기재한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을 경우는 원

제3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의장 : 제3호의안을 상정하다.[26]

(제안설명) 소집통지/공고한 이사후보자 최공장[27] · 신감초 · 마이클 영, 사외이사후보자 천사외 · 박다매 · 심각중 · 전성기를 정식 추천하고 이중 신감초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후보이며 심각중 · 전성기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자로서 별도의안 상정 예정임을 알리고 이의가 없으면 박수로 선임하여 줄 것을 제안하다.[28]

이에 출석주주 전원이 박수로써 만장일치 찬성 가결하다.

- 의장 : 원안 선임에 대한 이의여부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 제3호의안은 이사에 최공정(崔公正)[29] · 신감초 · 마이클 영(Michael Young, 미국 국적)[30], 사외이사로서 천사외(天使外, 중국 국적)[31] · 박다매[32] · 심각중 · 전성기, 이상 7명이 보통결의 요건을 갖추어 선임되었음을 선포하다.

위 피선임자(들)은 즉석에서 취임을 승낙하다.[33]

안과 수정안을 대비하여 기재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기재하고 첨부된 정관에도 비고란에 기재한다.

26) 2인 이상의 이사 선임 의안안을 집중투표제에 의해 실시할 때 의장이 의결에 앞서 집중투표의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린 경우 그 내용, 표결시의 1주 곱하기 이사예정자의 수에 따른 의결권수, 과반수가 아닌 최다득표자 순으로 선임된다는 내용, 표결절차 등을 기재한다. 표결시 투표의 공정성을 위해 감표위원을 선정하였다면 그 감표위원의 선정이 있었다는 사실과 인적사항 등도 기재하여 둔다.

27) 임기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 의사록에 총회일부로 사임하고 재선임하는 것인지, 예선(豫選)에 해당되어 임기만료일 이후 다시 임기가 개시되는지 여부도 기재한다. 임기가 다른 경우 그 기간을 적는다. 최공정(3년), 마이크 영(2년), 천사외(1년), 박다매(1년) 식이나 2009. 3. 20.~2011. 정기주주총회 종료시까지 식으로 기재한다.

28) 이 사례는 주주는 물론 의장조차도 이사후보를 알지 못한 채로 주주총회장에 와서야 그 후보자를 알던 시절을 벗어나 2주 전에 사전 통지 및 공고하는 상황이므로 인사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거치지 않고 축제의 장이 되기를 선호하는 집행부의 속성을 의사록에 기재한 것이며 이외에도 의안상정-선임예정 인원수에 대한 제안설명-주주의 의장복안 발표 요청-복안 발표-박수-선임 가결로 이어지는 경우와 의안상정-선임 예정 인원수와 성명, 약력 등의 구체적인 제안설명-주주의 찬반토론 없이 원안동과 동의-재청-선포로 이어지는 경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로 이어지는 의사진행도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작성할 필요가 있다.

29) 한자는 부기할 필요가 없으나 동명이인(同名異人)과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는 부기해야 의사록 작성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30) 상업등기규칙 제2조(등기기록 등에 사용할 문자 등) ①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할 때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호와 외국인 성명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한 다음 괄호 안에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를 병기할 수 있다.

31) 위과 같다.

32) 박다매 이사후보가 통지 · 공고후 재통지 · 공고할 시간적 여유 없이 사임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고 통지 · 공고한 후보에 한하여 선임한 결과를 기재한다. 후보의 사임 또는 타후보로의 대체 필요가 있어 긴급동의를 통하여 급히 선임한 경우 그 사유를 자세히 기재한다. 상장회사의 경우 상법 제542조의4 제2항에 위반되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며(상법 635조) 결의취소의 소가 2월내에 제기되지 않으면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상법 제376조 제1항). 공시위반으로 인한 제재는 별도이다.

33) 선임 선포후 인사가 있으면 "선임된 이사가 인사하다."를 추가한다. 취임승낙의 의미도 있다.

제4호의안 : 감사 선임의 건[34]

- 의장 : 제4호의안을 상정하다.

(제안설명) 소집통지/공고한 상근감사 후보자 최측근, 비상근감사 안측근, 이상 2명을 선임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하다.[35]

- 강선임 주주 : 주주로서 적임자를 추천하기가 어려우므로 주주가 믿고 경영을 맡긴 집행부가 후보자를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정식 소개를 거쳐 이의 없이 박수로 선임할 것을 동의하다.
- 의장 : 이의여부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정식 추천하다.[36]

상근감사로서 최측근, 비상근감사로서 안측근을 천거하다.

이에 출석주주 전원이 박수로써 만장일치 찬성 가결하다.

- 의장 : 복안 선임 통과에 대한 이의여부를 물어[37] 이의가 없으므로 제4호의안은 상근감사에 최측근, 비상근감사에 안측근이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하다.

주주들의 요청에 따라 위 선임자들은 주주에게 인사하다.[38]

위 피선임자(들)은 즉석에서 취임을 승낙하다.[39]

단, 감사 선임에 있어서는 상법 제409조제2항 및 제542조의12 제3항에 의하다.

제5호의안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의 건[40]

34) 4호의안을 상정하는 회사는 제5호, 제6호의안은 상정할 이유가 없다.

35) 개정 상법에서는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의 선임시에도 이사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의 경우와 같이 후보자의 성명 · 약력 · 추천인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종래 즉석에서 감사후보자를 추천하며 주주총회의 심의를 구하는 방식의 의사진행은 할 수 없다.

36) 정식 추천(복안발표)하는 과정에서 통지 및 공고되지 않은 후보자는 선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주제안의 절차를 밟지 않고 즉석에서 긴급동의 형식으로 감사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 만일 주주의 감사후보 추천이 있으면 정중히 기각하면 된다.

37) 반대주주가 자신의 반대의사를 의사록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의장이 이를 수락한 경우 반대자의 성명과 그 주식수, 이유를 기재한다. 증권결제예탁원에 의결권행사 요청을 한 경우 찬반비율에 따라 반대주식수에 포함시켜 기재한다. 통상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그 반대수가 의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보통결의나 특별결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표현으로 가결을 선포한 내용을 기재한다.

38) 인사를 하는 경우 실제 인사한 순서에 "주주들의 요청에 따라 ㅇ감사 후보 2인이 직접 본인의 약력을 소개하고 주주들에게 인사를 하다."와 같이 표기한다.

39) 이사,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 위 피선자들이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한다는 기재가 의사록에 없으면 선임등기시 이들의 취임승낙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는 등 번거로우므로 이를 기재토록 한.(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주총회 운영대책 특별연수 교재)

40)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통상 상근 감사위원을 말하는데 의결권에 있어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나 감사의 경우와 달리 기타 주주는 의결권의 3%제한이 없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과 그들에게 위임한 주식에 대해서는 합하여 3%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상법 제542조의12) 주주총회 상정 의안중 가장 까다로운 의안이므로 표결이 있을 경우 이를 정확히 반영 기재한다. 법제시에 이에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은 선임하기 곤란하도록 한 것이거나 아니면 낮술 한잔 하고 갑박 졸은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다.

• 의장 : 제5호의안을 상정하다.

(제안설명)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1명을 선임하고자 하며 소집통지/공고한 후보자 중 제3호의안에서 이사로 선임된 신감초를 정식으로 추천하고 이의가 없으면 박수로 선임하여 줄 것을 제안하다.[41]

이에 출석주주 전원이 박수로써 만장일치 찬성 가결하다.[42]

• 의장 : 원안 선임 통과에 대한 이의여부를 물어[43] 이의가 없으므로 제5호의안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에 신감초 이사, 이상 1명이 관계법령의 요건을 충족하여[44] 선임되었음을 선포하다.

위 피선임자는 즉석에서 취임을 승낙하다.

단,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서는 상법 제542조의12에 의하다.

제6호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45]

• 의장 : 제6호의안을 상정하다.

(제안설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2명을 선임하고자 하며 소집통지/공고한 후보자 중 제3호의안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심각중과 전성기를 정식으로 추천하고 주주들의 심의를 구하다.[46]

• 한독도 주주 : 후보자의 경력이나 그간의 실적으로 보아 회사 발전과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할 적격 인물로 판단되어 후보자 전원을 박수로 선임할 것을 동의하다.

이에 출석주주의 재청이 있다.

• 의장 : 이의여부를 묻자 반대하는 주주가 있어 발언권을 부여하다.

• 남시비 주주 : 감사위원들이 이사회에서 거수기 역할만 하고 출석률도 낮아 굳이 재선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비용지출만 초래하므로 선임에 반대하다.

41) 감사 선임시와 유사하나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그 성명 등을 소집통지 · 공고하여야 하므로 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사 의안과 같은 요령으로 기재한다.

42) 인사를 하는 경우 각주 감사의 경우와 같이 표기한다.

43) 반대주주가 자신의 반대의사를 의사록에 기재하는 조건으로 표결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의장이 이를 수락한 경우 반대자의 성명과 그 주식수, 이유를 기재한다. 주주가 의사록에 기재를 요청한다고 해서 의장이 무조건 들어줄 이유는 없다.

44) 의결권의 제한 등으로 표현이 까다로워 표기한 경우이다. 이로써 하단의 상법 조항은 굳이 기재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45) 사외이사만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으로 표기해도 좋다. 감사선임과 의결권 행사 요건이 같은데 감사위원은 이사이면서 감사위원이기 때문에 2009년 1월 30일 이전에는 이사선임 시에 이사로 선임하고 별도로 감사위원 의안으로 선임을 하는가 아니면 이 의안명과 같이 선임하여야 하는가를 놓고 여러 해석이 있었으나 2009년 2월 3일 시행된 상법 제542조의 12의 규정에 따라 이사 선임 후 선임된 이사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46) 제안설명을 하고 주주들에게 심의를 구한 사례이다.

• 의장 : 다른 주주는 선임에 이의가 없는지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 반대주주 1인에게 후보자가 선임되면 주주의 기대에 부응할 것임을 말하고 반대의사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다.[47]

• 남시비 주주 : 반대를 철회하다.

• 의장 : 재차 이사후보 전원에 대한 선임 여부를 묻다.

이에 출석주주 전원이 박수로써 만장일치 찬성 가결하다.

• 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제6호의안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에 심각중 · 전성기, 이상 2명이 관계법령의 요건을 충족하여 선임되었음을 선포하다.

위 피선임자들은 즉석에서 취임을 승낙하다.[48]

단,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서는 상법 제542조의12에 의하다.

제7호의안 : 이사 보수한도 결정(승인)[49]의 건

• 의장[50] : 제7호의안을 상정하다.

(제안설명) 제30기는 '이사보수'로 10억원(이사 8명)[51]을 책정받아 8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제31기에는 12억원(이사 11명) 한도 내에서 그 집행은 이사회에 일임하여 줄 것을 제안하다.[52]

• 신보수 주주 : 이사의 증원에 따라 자연히 증가된 금액이므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다.

이에 출석주주의 재청이 있다.

• 의장 : 원안 승인 통과에 대한 이의여부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 제7호의안이 12억원 한도 내에서 그 집행은 이사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47) 반대 후 반대를 철회할 경우의 다른 표현으로 "ㅇ의장 : 찬반토론이 있은 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자의 이사 선임에 이의여부를 묻자 주주 1인을 제외하고 다 찬성하므로 반대한 1인 주주의 의견을 재차 묻자 반대의견을 철회하다."로 기재해도 무방하다.

48) 출석하지 않은 경우 사실대로 기재한다. 1인만 출석하였을 경우 그 성명과 승낙사실을 기재한다.

49) 의안명이 "결정의 건" 또는 "승인의 건"으로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 상법에서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어 의안명을 "~결정의 건"으로 한 것이다. 보수관련 조항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승인"은 전 의안에서 대체로 사용된다. 참고로 정관일부 변경의 건도 상법 제433조 제1항에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에 따라 정해진 의안명이고 일부 변경인가 전부 변경인가에 따라 "일부"나 "전부"를 붙여 쓰는 것이 관례이다.

50) 사람 앞 등에 붙는 동그라미(ㅇ)는 승정원일기나 조선왕조실록에도 구분표시로 되어 있는 전통 있는 표기방법이다.

51) 이사의 수와 이사 전원에 대한 보수총액 또는 최고 한도액을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참고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상법 제542조의 4 제3항 등에 따라 작성한 참고서류인 경영참고사항 기재요령에 맞추어 이사 수와 보수한도를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또한 주주 등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52) 이사 각각의 보수를 총회에서 정하지 않는 한 이사회 위임 내용이 없더라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나 이를 시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정확한 기재를 하는 것이 좋다.

제8호의안 : 감사 보수한도 결정(승인)의 건[53]

• 의장 : 제8호의안을 상정하다.

(제안설명)[54] 제30기는 '감사보수'로 2억원(감사 2명)을 책정받아 1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제31기에도 2억원 한도내(감사 2명)에서 그 집행은 감사에게(또는 감사간의 협의에) 일임[55]하여 줄 것을 제안하다.

• 신세대 주주 : 금기[56]와 동일한 액수이므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다.

이에 출석주주의 재청이 있다.[57]

• 의장 : 이의여부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 제8호의안이 감사보수로 2억원 한도내에서 그 집행은 감사에게(감사간의 협의에) 일임하는 것으로 보통결의 요건을 갖추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9호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58]

• 의장 : 제9호의안을 상정하다.

(제안설명) 임직원의 경영목표 성취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홍길동외 30명에게 30만주의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며, 그 행사방법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해 줄 것을 제안하고 주주들의 심의를 구하다.

〈별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 배당조 주주 : 주식수 증가로 주식가치가 하락되지 않나 염려가 되지만 스톡옵션을 부여한 회사가 주

53) 상법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5항에 따라 상장회사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회를 채택한 경우 이사보수 의안에서 다룬다.

54) 제안설명에 법률규정을 넣는 것도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주주총회가 그 관련법률에 따라 소집부터 주주총회 결의와 배당금의 지급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한다면 굳이 넣어야만 권위를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

55) 이사의 선임 · 보수 결정 의안을 감사와 분리한 것은 감사의 독립성을 선임에서 뿐만 아니라 보수에서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이사회에 위임하는 이사 보수한도와 구별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회사는 보수지급규정이 있어 이에 따르게 되지만 이사와 감사간의 현격한 의견차이로 인해 감사의 독립성을 해치게 될 때는 이 결의가 효과가 있겠다.

56) 금기(今期)는 30기를 말하고 전기(前期)는 29기, 내기(來期) 또는 차기(次期)는 31기를 의미하므로 의미상의 혼동을 피해 기재해야 한다. 이는 12월 결산법인을 기준한다면 주주총회가 결산기로부터 3월이내에 소집되어 연도가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57) 동의(動議)와 재청(再請)이 없는데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장이 제안설명을 마치자 아무런 발언신청이 없으면 의장이 재차 질문이나 발언할 주주가 없느냐고 물을 것이고 또 묵묵부답이면 의장이 통과해도 되겠느냐, 이의없느냐고 물을 것이다. 그래도 묵묵부답이라면 이 상황을 그대로 기재하면 된다. "주주의 발언요청이나 질문이 없다." "의장은 재차 질문이나 발언할 주주가 없느냐고 묻다." "의장은 원안대로 통과해도 되겠느냐, 이의없느냐고 묻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주가 없다." "의장은 보통결의요건을 갖추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58) 이 의안은 결의가 있은 때 의사록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공시감독국,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에 지체없이 신고 · 보고하여야 한다.

가가 높다는 통계도 있는만큼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들이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 분발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다.

이에 출석주주의 재청이 있다.

• 의장 : 원안 승인 통과에 대한 이의여부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 제9호의안이 상법 제434조의 요건을 갖추어[59] 원안대로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10호의안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정의 건

• 의장 : 제10호의안은 상정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의안을 철회함을 선언하다.[60]

이상으로 부의안건[61]의 심의가 완료[62]되어 오전 11시 35분[63]에 폐회를 선언하다.[64] [65]

위의 결의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장과 출석이사[66] 전원이 기명날인/서명하다.

ㅁ년 ㅁ월 ㅁ일[67]

59) 특별결의사항임을 기재한 사례이다.

60) 의안 결정을 이사회가 하였듯이 의안 철회는 이사회 결의가 있고 의장이 이를 선언한 경우 철회되었다고 기재한다. 주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안 심의 도중에 M&A 방어를 위한 조항이 들어가 있는 정관변경안의 일부 조항을 철회한다든지 배당안을 상향 수정할 때에도 정회를 한 후 이사들이 모여 이사회를 개최하는 형식을 통해 결의하고 주주들에게 철회 또는 수정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그러나 철회나 수정이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않고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형식을 취하든 문제될 것이 없겠다.

61) 부의안건명을 출석주식수 다음에 기재하여 목차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62) 완료(完了)는 모두 끝났다는 뜻이므로 "모두 완료", "전부 완료"와 같은 중복 용어를 쓰지 않도록 한다.

63) 시작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기재하는 것은 회의체의 기본이다. 국회의 경우는 개의와 산회시간 뿐만 아니라 안건의 상정시나 투표의 개시와 종료시에 시간을 기재하여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64) 폐회 선언후라도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기재한다. 예를 들어 반대한 주주가 총회 결의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발언하였다든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 선임된 이사 등이 주주를 향해 인사하고 취임승낙 발언을 하였다든지 의장이 주주총회가 예정보다 많이 늦어진 사유나 장소변경에 대한 불가피성을 설명하였다든지 접수과정에서의 의결권 불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든지 의장이 앞으로 절대 자본감소의 건은 없을 것이라는 말을 한 경우 등이다.

65) 의사록의 작성시기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등기를 위해서 2주간내에 작성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상장규정 제55조의 4호에 따라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에 지체없이 공시를 하는 경우이다. 의사록의 작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장과 출석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의사록이 필요하므로 이사가 흩어지기 전에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하는 애로가 있다. 통상 회사에서는 시간이 촉박한 공시에 필요한 의사록은 회사계출인감을 사용하고 그 후에 등기에 필요한 의사록에는 개인인감과 인감증명서, 이사 등 취임승낙서를 제출받아 처리한다.

66) 의사록의 작성시기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등기를 위해서 2주간내에 작성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상장규정 제55조의 4호에 따라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총괄팀에 지체없이 공시를 하는 경우이다. 의사록의 작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장과 출석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의사록이 필요하므로 이사가 흩어지기 전에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하는 애로가 있다. 통상 회사에서는 시간이 촉박한 공시에 필요한 의사록은 회사계출인감을 사용하고 그 후에 등기에 필요한 의사록에는 개인인감과 인감증명서, 이사 등 취임승낙서를 제출받아 처리한다.

67) 총회개최일을 기재한다. 연기 · 속행의 경우도 연기 · 속행의 결의가 있는 날을 기재한다.

한 국 ㅁ 주 식 회 사

의장 · 대표이사	박 총 명	㊞/서명(68)
이 사	이 강 욱	㊞/서명
이 사	이 승 태	㊞/서명
이 사	최 공 정	㊞/서명
이 사	마 이 클 영	㊞/서명
사외이사	천 사 외	㊞/서명
사외이사	박 다 매	㊞/서명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신 감 초	㊞/서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손 해 만	㊞/서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심 각 충	㊞/서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전 성 기	㊞/서명

제2절 작성의무자

주주총회 의사록의 작성의무자에 관해서 상법은 이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 의무자가 누구인가에 관하여는 의장설[69], 대표이사설[70]로 나누어져 있다.

1. 의장설

주주총회의 운영 책임은 의장에게 있고 의장은 주주총회의 주재자로서 의사를 진행하고 운영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자이다. 의사록은 상법 제373조 제2항에 따라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록하는 문서이고 이 역시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의 책임에 속한다. 의장이 아닌 대표

68) 의사록의 날인은 등기를 요하는 경우는 모두 개인인감이다. 또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할 이사는 반드시 출석한 이사이어야 한다. 주주총회에 복수의 이사와 사외이사가 함께 출석한 경우 주주총회의사록에는 새로 취임한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충분하며 전원 등기임원도 아님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주총회 운영실무 특별연수 교재).

69) 大隅健一郎, 全訂株式会社法, 中 43면.

70) 西原寬一, 「주주총회의 운영」, 주식회사법강좌 제3권 871면.

해임을 당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경우 정서적 악감정으로 고의로 의사록의 작성을 아예 하지 않거나 개선된 이사 · 감사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제3절 공증인의 인증과 비치

주식회사가 각종의 등기신청서를 할 때에 그 등기시항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반드시 그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2항). 그리고 공증인법 제66조의2를 보면 모든 법인이 등기신청을 할 때에 그 신청서에 첨부한 총회 등의 의사록에는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

회사는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제396조 제1항). 본점에 원본 1통을 비치하고 지점에는 그 등본을 비치하면 된다. 이사가 이 비치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의 制裁를 받는다(제635조 제1항 제22호). 본 · 지점에 비치된 의사록은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396조 제2항).

제5장 결론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의사록은 그 존재 이유가 증거성과 더불어 공시 · 비치를 통해 누구든지 의사록을 봄으로써 그 경과 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업무상 번거로움을 이유로 결과에만 치우쳐 대충대충 작성한 의사록보다는 회사의 귀중한 역사를 담고, 그 내용을 일별할 수 있으며 요즘과 같이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소액주주를 비롯한 경영권 침탈 세력이 횡행하는 상황에서 법정에 제출할 증거자료로서의 가치도 함께 지니는 의사록의 작성이 필요하다 하겠다.

선진국들은 기록을 중시한다. 우리나라도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록물관리법 등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기록물을 생산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 관리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기록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실천하고 있다. 주주총회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록한 유일한 법정 기록물인 의사록의 작성에 대해서 1년에 한 두 번 개최되는 통과의례적인 주

이사는 의사록의 비치의무를 지고[71], 이의 부실기재에 대한 제재를 받는 위치에 있으므로[72], 의장과 협력하여 의사록의 작성을 돕고 의장이 이의 작성을 게을리할 때에는 의장을 대신하여 작성하여야 하지만 일차적인 작성의무자는 의장이라고 보아야 한다.

2. 대표이사설

의사록을 비치할 의무가 대표이사에게 주어져 있다. 이를 비치하지 않을 때 또 부실기재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 것은 대표이사이다. 또한 주주총회 소집부터 총회에 관한 모든 사무처리 책임은 집행기관인 이사회와 대표이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대표이사를 의사록의 작성책임자로 보아야 한다.

3. 현재의 실무관례

회사는 정관에 주주총회의 의장에 관해서 통상 대표이사 중 1인을 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도 상장회사표준주주총회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의사록은 의장으로 하여금 총회를 마친 뒤 지체 없이 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이 이를 지체할 때에는 대표이사가 이를 작성한다[73]고 규정하여 실무의 지침을 세우고 있다.

각자 대표이사나 공동 대표이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도 있는데 이때는 회사 내부적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작성자를 정하면 될 것이나 그들 사이에 권리의무의 차이가 없으므로 작성과 비치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고 과태료의 제재에 대한 책임도 공동으로 지게 된다.

대표이사가 의사록의 작성을 게을리 하면 대표이사 아닌 이사라도 작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출석한 이사는 물론 출석하지 아니한 이사도 마찬가지이다.[74]

드물기는 하나 경영권 분쟁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수주주가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사

71) 상법 제396조

72)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

73) 상장회사표준주주총회운영규정 제42조의사록의 작성 제1항 제2항

74) 집교성의 전게서

주총회 행사의 문서의 하나로만 볼 것이 아니라 회사의 최고의결기관에서 결의된 안건에 대한 중요한 기록물로서 인식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는 지속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민중서림 엣센스 국어사전. 1989.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주총회 운영대책 특별연수」 교재, 2008.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주주총회 운영대책 설명회 자료」, 2008.

김교창, 「주주총회의 운영(재개정판)」, 육법사, 2002.

박승룡 · 정병덕, 「상법 I」,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6.

한암사 「최신개정판 법률용어 사전」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17판, 박영사, 2008.

이철송, 상법강의 9판, 박영사, 2008.

국회 홈페이지, www.assembly.go.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 www.glaw.scourt.go.kr

증권선물거래소 홈페이지, www.krx.co.kr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홈페이지, www.klca.or.kr

일본 국회의 속기 시스템의 변화

일본 국회의 속기 시스템의 변화

최영림

요즘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일본 국회에서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변화의 중요성은 가까이에 있다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업무 구조를 가진 일본에서 생겨난 변화이기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미치게 될 영향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필자가 중의원을 방문했던 2005년도만 해도 이미 속기를 배우는 사람이 없어서 신규채용이 몇 년째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나마 중앙은 기존의 인력들이 있어서 명맥은 유지되고 있었지만 지방의회는 더욱 열악한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홋카이도의 오타루 시의 경우에는 회의 내용을 녹음했다가 그것을 시의회 직원이 워딩하는 작업을 할 정도였다. 그래서 참의원을 비롯한 지방의회에서는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음성인식 연구에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 당시의 음성인식 연구는 초기 단계로 그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았던 듯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오늘 그러한 연구가 결실을 맺어 중의원에서 속기 시스템의 대전환이라는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부터 현재 일본 중의원 기록부의 업무 현황과 음성인식 도입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기록부의 조직 및 인원 구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록부의 가장 상위 직급인 기록부장 아래로 부장, 부부장, 과장, 실장, 주간이 있으며 이상까지가 관리직이다. 그 아래 실무 직원으로는 속기감독, 속기부감독, 주임속기사, 속기사가 있다. 기록부의 정원은 관리직을 제외하고 2011년 현재 149명이다.

둘째, 현재 기록부의 속기 업무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것은 음성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기존의 속기사들이 현장에서 수필속기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다.

지금 현재 중의원에서는 본회의, 예산위원회 등 특히 신속성이 요구되는 특별위원회는 종전대로 본회의장, 각 위원회 회의장에서 속기를 하고 있다. 또한 의원운영위원회, 지방공청회 등의 녹음설비가 구비되지 않은 회의 및 비밀회의 등 영상정보가 없는 회의도 속기를 하고 있다. 그 외의 위원회 등은 음성인식 시스템만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셋째, 그렇다면 수필속기를 할 때 속기석의 위치는 어디일까?

종전대로 의장 · 위원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넷째, 우리 국회에서는 2인 1조(온점)와 1인 1조(독점)로 구성되어 회의장에서 속기를 하는데 중의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을까?

중의원에서는 독점으로 5분씩 교대한다고 한다.

다섯째, 음성인식 시스템은 어느 정도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일까?

음성인식은 본회의나 예산위원회 등 현장에서 속기를 하는 회의를 포함한 모든 회의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음성인식 시스템의 정확도는 80~90% 정도라고 한다. 다만, 음성인식 도입 후에도 종전과 같은 속도로 회의록이 작성되고 있다고 한다.

여섯째, 음성인식 시스템 도입 후에 기존 속기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의 업무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각 위원회의 속기석에 착석하여 회의장에서가 아니면 파악할 수 없는, 회의록에 필요한 정보를 메모하는 임장자(臨場者)가 있고 이들의 작업 단위는 30분이다. 또한 사무실에서 임장자의 정보도 참고하여 음성인식 결과 텍스트 수정을 하는 원고 작성자가 있는데 이들의 작업 단위는 5분이다. 현재는 이러한 두 가지로 원고를 작성하고 있으며, 속기부감독이 회의장에 들어가지만 손이 비는 속기부감독은 원고작성도 하고 있다. 교열 이후의 속기감독의 작업은 종전과 같다.

일곱째, 음성인식 도입 이후 직원 채용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지금 현재 속기사의 신규 채용은 없다. 단, 현재 이미 기록부 외의 부서에서 이동해 온 일반 사무직원에 대해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매년 수 명의 연수생이 기록부에 배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2년 정도 연수 후에 속기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본의 이러한 변화는 속기사의 사회적 위상 변화와 속기 인력의 부재와 큰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과 무관하지만은 않으며 우리에게도 변화의 발걸음이 시작되는 출발선상이 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중의원의 변화에 대해서 일본 국내에서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2011년도 8월 16일자 毎日신문에 실린 기사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알고 싶다! : 국회「속기」에 음성변환 효율화, 중의원에서 세계 최초 도입

「深いな発言」→「不快な発言」녹음 데이터를 기초로 수정

뜨거운 정책 논쟁을 냉정하게 받아 적는 속기사. 제1회 제한국회(189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국회에서 친숙한 광경이지만 금년도부터 중의원의 의사록 작성방법이 바뀌었다. 발언을 자동적으로 문자로 변환하는 「음성인식시스템」을 세계에서 최초로 도입한 것이다. 그 실태는……

오전 9시에 개회한 중의원 예산위원회 집중심의. 9시 10분. 중의원 분관에 있는 기록부 제3과의 코마츠 아리타 씨의 컴퓨터로 서두 5분간의 대화를 자동적으로 문자화한 데이터가 보내진다. 발언자명과 마침표, 행을 바꾸지 않고 「深いな発言」가 「不快な発言」로, 「被災以来」가 「被災いない」라는 오기도 있다.[1]

코마츠 씨는 시스템에 내장된 녹음 데이터를 재생하면서 가필, 수정을 하고 9시 25분에는 제1원고를 완성했다. 이 음성인식 시스템 도입 전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속기한 것을 컴퓨터로 다시 보통문자로 새로 쳤다. "이중작업에서 해방되어 원고작성이 빨라졌어요."하고 웃는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중의원 심의의 음성분석을 해 온 교토대학의 협력을 얻어서 음성을 자동적으로 문자화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금년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했다.

제헌의회 시대는 중의원과 귀족원(현재의 참의원)에 속기과를 두고 각각의 속기방식을 채용. 1918년에는 양원 각각이 속기사 양성소를 설치하여 2년에 걸쳐서 속기사를 양성했다. 국회 개혁의 일환으로 의사록 작성의 효율화가 결정되어 2005년도부터 양원 모두 신규모집은 정지되었다.

새로운 시스템의 연구개발도 중 · 참의원에서 각기 다르게 시행되었다. 참의원은 한발 앞서 2008년 1월, 기록부 직원이 자신의 자리에서 컴퓨터로 음성과 영상을 재생하면서 문자화하는 방식을 채용. 여기도 속기나 위원회 회의장과의 왕래가 줄어든 만큼 적은 인원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메리트이다.

결과적으로 양원의 의사록 작성 방식이 다르다는 '전통'이 지켜졌다는 것에 대해서, 속기

1) 「深いな発言」과 「不快な発言」는 「ふかいなはつげん」으로 발음이 똑같다. 「被災以来」는 「ひさいいらい」로 발음하며 「被災いない」는 「ひさいいない」로 발음한다.

사 경력 33년인 중의원 회의록 데이터 관리실장은 "'원의 독립'이라는 정신이 담긴 결과다"라고 말한다.

검토 단계에 이르러 각국의 사정을 조사한 중의원 사무국에 의하면 영국은 참의원에 가까운 「테이프 문자화」 방식, 독일은 속기사에 의한 속기를 계속하고 있으며, 미국은 속기사에 따라 방식이 자유로운데 중의원처럼 음성인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세계 최초의 시도라고 한다.

일련의 효율화로 중의원 기록부의 직원 수는 가장 많을 때인 약 180명에서 150명으로, 참의원도 약 90명에서 70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단지 중의원에서 신속성이 요구되는 본회의나 예산위원회 등에는 지금도 속기사가 회의장에 들어가고 있다. "현장에서 대화를 들은 사람이 나머지 작업 시간이 보다 빨라진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서두에 등장한 코마츠 씨도 담당하는 5분간은 예산위원회에서 속기를 하고 있다.

제1원고를 작성한 뒤에 심의에서 나온 관계자들의 이름이나 고유명사를 체크하고 의사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있다. 회의록 데이터 관리실장은 "음성인식 시스템의 인식률은 약 90%로, 100%는 있을 수 없다. 지금까지와 같은 수준의 의사록을 만드는 데에는 사람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완전 자동화를 달성하는 데에는 수상이나 각료가 보다 "명확"하게 답변하는 것도 불가결한 것은 아닐는지.

일본 국회의 속기 시스템의 변화

궁금했습니다! 권영찬 과장님 인터뷰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가해진 3월 어느 날 의정기록과에서 39년 근무하시고 지금은 통일연구원에 파견을 나가 계신 권영찬 과장님께 홍보부에서 인터뷰를 청해 보았습니다. 한 직장에서 40년 가까이 근무하시고도 지루해 보이는 적 없이 항상 활기차게 다니셨던 터라 그 비법(?)이며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INTERVIEW

홍보부(이하 홍) : 속기를 알게 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알게 되셨고 언제 시작하게 되셨어요?

권영찬 과장(이하 권) : 72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내가 나온 데가 양정고등학교였어. 그때는 서울에 5대 사립 5대 공립이라고 양정이 5대 사립에 들었는데 반에서 꼴등이 중앙대 약대를 갈 정도였지. 그래서 가고 싶은 대학은 웬만하면 갈 수 있었는데 집이 많이 가난했거든. 대학을 갈 형편이 안 됐어.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고대의대를 지원했다 떨어지고 친척어른이 인쇄소를 하고 계셔서 견습공으로 들어갈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어머니가 조선일보를 들고 오시더라고. 거기에 속기사양성소에서 학생을 모집한다고 거기 한번 들어가 보라고. 뭘 그런 데를 가냐고 싫다고 했지. 그런데 어머니가 점수를 하고 오신 거야.

그래서 시험을 치러 갔는데 100명을 뽑는데 1000명이 온 거야. 시험은 영어, 국어, 일반상식을 보고 논문 쓰라고 하고, 되겠나 싶었는데 됐더라고. 그래서 영집절에 속기를 시작하게 됐지.

홍 : 그렇게 시작했다면 속기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하게 된 건데 수필속기를 배우는 데는 얼마나 걸리셨어요?

권 : 그게 참 그런 게 난 배우고 국회 시험에 합격하기까지 딱 1년 걸렸어. 양성소에서 100명을 뽑고 1년 동안 가르쳐 주는데 국회에서 매년 한 명씩밖에 안 뽑았거든. 그 합격자도 100명 중에 되는 게 아니라 재수, 삼수를 해서 붙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해 졸업생 중에 나 한 사람이 됐어.

내가 태어나서 최고로 적성에 맞다고 생각한 게 속기였어. 원래 뭘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거 싫어하거든. 그러다 보니 뭘 해도 그냥 중간 정도, 눈에 안 띄고 그만그만한데 속기는 노력하지 않아도 최고가 될 수 있더라고.

처음에 기본문자 끝나고 속도 올리는 연습하면 보통 100자부터 나가는데 그때 130~140자를 썼어. 글씨는 엉망이지만 속도가 여유가 있으니 쓰면서 앞의 문장을 읽으면서 나가니까 번문이 잘 되는 거지. 원체 손이 빨랐고 열심히 안 해도 처음으로 1등이란 걸 해 봤어. 그래서 소질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지.

홍 :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속기의 매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권 : 음…… 속기의 매력이라기보다 개인적인 건데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았고 양성소를 들어가서도 열심히 하는 편도 아니고 튀는 사람도 아니라 사람들이 내가 잘하는지도 몰랐는데 중간고사에서 1등을 하고 졸업까지 계속 1등을 했어. 그래서 나도 잘하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지. 내가 몰랐던 숨은 재능을 알게 된 것. 그게 신기하더라고.

홍 : 그렇게 국회를 들어오게 되시고 속기를 하면서 회의장에서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권 : 제일 기억에 남는 건 79년 군사정권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로 있을 때 제명의 건이 법사위원회에 올라왔었거든. 그때는 녹음기도 없을 때라 노트를 뺏기면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쓰자마자 제단으로 뛰어 올라가는데 넘어지고…… 긴장된 순간이었지. 김영삼 제명 사건은 그 후에 신민당 의원들이 전원 사퇴하고 나중에 부마사태로 이어지고 그랬어. 그래서 유신정권 말로를 가져온 불씨가 됐던 사건이야.

홍 : 과장님은 관리자로서 오랜 시간을 보내셨는데 기억에 남는 사건은 어떤 게 있으세요?

권 : 기억에 남는 사건이야 뭐…… 국회야 정치 하는 곳이니 항상 긴장을 하며 살아야지. 자기가 맡은 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한곳에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서 일을 하니까 서로 많이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부딪칠 일도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좋은 팀원들 만나서 서로 화목하고 일도 잘하면 그게 참 좋더라고.

홍 : 과장님은 속기를 통해 승은 재능만 발견한 것뿐만 아니라 사모님도 만나셨는데요. 사내연애는 어떠셨어요?

권 : 내 아내가 5년 후배로 들어왔는데 첫날 와서 인사를 도는데 첫눈에 마음에 들었어. 예쁘더라고. 그래서 공을 많이 들였지.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하면 전날 고른 책을 책상 위에 올려 뒀어.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책도 주고…… 그때는 겨울에 영하 20도까지 내려갔는데 여의도가 또 얼마나 추워. 그런데 신입이라 투피스나 원피스 이런 정장만 입는 거야. 내 눈에는 너무 안쓰러웠지. 추울까봐. 그래서 개버딘이라고 면은 아닌데 따뜻한 재질로 만든 코트도 선물하고 그랬어. 원래 연애할 때는 뭐든 다 주고 싶잖아. 나도 그때 돈이 없을 때였는데 돈 생기면 이것저것 선물하고 그랬어.

데이트는 쉬는 날이면 아침 9시에 석율역에 '역마차'라고 다방이 있었거든. 거기서 만나서 새벽 1시까지 같이 있었어.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았는지 아침부터 만나도 지루하지가 않더라고. 그렇게 1년 반을 연애하고 결혼을 했지. 예물 이런 것도 없이 결혼식만 올리고 신혼여행도 세무서 다니는 친구가 소개해 준 속초 호텔로 갔어. 음식이며 숙박을 다 공짜로 해 줬거든. 지금은 상상도 못 할 만큼 가난했는데 돌이 있으면 뭘 해도 행복하고 그런 참 좋은 시절이었어.

홍 : 양진숙 선배님이 2000년에 퇴직을 하시고 이어서 따님이 2007년에 들어오게 되셨는데 딸과 함께하는 직장생활은 어떠세요?

권 : 나야 좋지. 나는 참 좋아. 딸이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꿈을 이룬 거고 덕분에 나는 인사도 많이 듣고…… 그런데 우리 딸은 부담되는 모양이더라고. 자기는 잘 모르는데 엄마 아빠를 아는 사람이 많으니 좀 불편하겠지.

홍 : 회의록이란 무엇일까요?

권 : 너무 진지한 건 나랑 안 어울리는데……

그래도 얘기를 해 본다면, 회의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지. 뭐 나는 회의록이란 이런 거다라고 정의를 내리지는 못하겠어. 내가 입사 이래 평생 해 온 게 회의록 관련 일이고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했을 뿐이지. 뭐 회의록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 기록이란 그 자체가 꼭 필요한 거고 나중에 이 시대 상황을 인식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나 할까. 거기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야 후세 사람들이 하는 것일 테지만 말이야.

홍 : 그러면 진정한 속기사의 자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권 : 진정한 속기사가 되려면 우선 인문사회에 관한 지식이 많아야 돼. 그러려면 책을 많이 봐야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직업의식이 투철해야지. 프로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프로의식이라는 건 10분 15분을 쓰더라도 내 원고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지. 얼마나 알차고 하자 없이 했느냐 그런 데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데 요새는 그런 자세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 아쉬워.

홍 :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속기 자체에 대한 위기감이 있는데요. 우리 조직을 보셨을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권 : 앞으로 제일 문제가 저거야. 음성인식. 언젠간 그쪽으로 갈 텐데 참 큰일이야. 지금 현재 이 조직으로는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이제 음성인식으로 가기는 갈 거니까 우리가 회의장에서의 속기보다는 편집 능력이런 게 더 중요하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미흡해. 단계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소수 정예화도 필요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비를 못 하고 시간만 가는 것 같아 안타까워.

홍 :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후배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권 : 내가 보기에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적도 만들면 안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참 위로 아래로 잘 하려면 본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직장생활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포기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죽일 필요는 있는데 그건 참 힘들고, 아니면 그냥 내 소신대로 살겠다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나는 자유롭게 살았지만 어떤 게 정답인지 나도 모르겠어.

그래도 이렇게 쓰는 건 좀 그러니까 그렇게는 말고. 인화(人和)가 제일 중요해. 말하자면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지. 서로서로 위해 주고 두루두루 잘 지내고 직장생활에서는 그것도 필요해.

봉일연구원으로 인터뷰를 가겠다던 우리 홍보부에게 멀리 올 것 없이 직접 국회까지 와 주시겠다고 해 주실 정도로 배려심이 있으신 권영찬 과장님.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 주시고 번거로운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기자영 기자

우리말 고운말

김나영 기자

기본형을 생각해 보세요!

ㄱ. 너희 둘이 (사귀어, 사겨) 보면 어떨까?

ㄴ. 내 것과 네 것이 (바뀌었어, 바꼈어).

위의 예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틀리는 표현입니다. 가령 이 표현뿐만 아니라 맞춤법이 헷갈릴 경우에는 각 동사의 기본형을 생각해 보면 상당 부분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ㄱ의 기본형은 '사귀다'이고 ㄴ의 기본형은 '바뀌다'입니다. '사귀어'와 '바뀌어'와 같이 'ㅟ+어'가 되는 경우에는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겨'는 '사기어'의 준말일 것이고 '바꼐'는 '바끼어'의 준말일 것입니다. '사기다', '바끼다'라는 동사는 없으니 '사귀어', '바뀌었어'가 정답이겠지요.

예외는 있습니다.

특정한 어미가 연결될 때 전체의 모습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ㄱ. 잡그다, 잡-가, 잡그-니 / 담그-다, 담-가, 담그-니

ㄴ. 머무르-다, 머물러 / 들르-다, 들러

'잡그-'는 '-어'가 결합되면 '잡가'로 모양이 바뀝니다. '담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전체 모양이 바뀌는 경우 불규칙 활용이라고 합니다.

"물을 잡궈라."의 '잡궈라'는 '잡가라'로 고쳐야 옳고, "바닷물에 손을 담궜다."의 '담궜다'는 '담갔다'로 고쳐야 옳습니다. '머무르-'는 '-어'가 연결되면 '머물러'가 되고 '들르-'는 '들러'가 됩니다.

"예, 아니요"

소리가 같아져서 구분하기 쉽지 않은 예의 대표적인 것이 '요'와 '오'일 것입니다.

1) 먼저 '요'는 두 가지 쓰임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말이 끝난 다음에 덧붙어서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둘째로는 서술격 조사 '이-' 다음에 나타나서 문장끼리 서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연결어미입니다.

'요'와 '오'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한 간단한 구분법이 있습니다. 단 '요'가 보조사의 의미로 쓰일 때만 해당됩니다.

"무엇을 할까요?"에서 '요'는 덧붙어 높임의 뜻을 나타낼 때의 '요'입니다. 이때 '요'가 빠져 "할까?"가 되더라도 문장 성립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는 빠질 경우 "말씀 낮추십시-"에서 알 수 있듯 문장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생략했을 때 문장 성립이 되면 '요'를 쓰면 되겠지요.

'요'와 '-오'를 의미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들도 "예, 아니요"에서의 '아니요'를 '아니오'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의 낮춤말 "응, 아니"에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요'가 붙으면 '응'은 '예'로, '아니'는 '아니요'가 됩니다. 물론 이때 '요'가 빠지더라도 의미는 성립됩니다.

"예, 아니요" 이제는 헷갈리지 마세요.

ㄱ.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연필이다.

이때의 '-요'는 서술격조사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생략했을 때 의미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요'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2) '-오'는 설명, 의문, 명령, 청유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입니다.

ㄱ. 어서 오시오.

ㄴ. 따님이 참 예쁘오.

ㄷ. 얼마나 심려가 크시오?

ㄹ. 부모님이 기다릴 테니 빨리 집으로 돌아가오.

나의 첫 속기학술세미나

김영진

푸르고 만물이 비약하기 시작하는 5월, 따스한 봄은 이미 지나 붉은 태양이 점점 그 열기를 더해 가는 그때, 아직 연약한 한 마리 생명이 힘차게 날아오를 준비를 하는 그때, 그 약동하는 기운을 받기 위한 제19회 속기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속기학술세미나는 대한속기협회의 가장 많은 회원이 참석하는 주요 사업이다. 대한민국 속기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주제 발표와 많은 제언을 듣는 기회이자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모든 속기인들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중차대한 행사에 미력이나마 보탤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감개가 무량하고 황송함이 그지없었다. 그 마음 고이 접어 행사장에서 풀어내리라 다짐하며 당일선발 차량에 몸을 실었다.

덕산 리솜스파캐슬에 도착하자 봄기운 가득 머금은 촉촉한 이슬비가 우리를 맞이한다. 여느 때 같았으면 추적추적 내리는 기분 나쁜 가랑비라고 불평할 수도 있었겠지만 처음 맞는 속기학술세미나에 달뜬 내 심경에는 그렇게 비쳤으니 역시 일체유심조라 아니할 수 없다.

본부에 들어가자 선발대로 오신 선배님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전날 미리 장을 봐 놓고 사전 준비로 분주한 모습에 약간은 무얼 해야 하나 긴장이 되었다. 의지만 앞서 혹 실수나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잠깐 휘저었지만 구석 한켠으로 밀어 두고 선배님들의 지시에 따라 준비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전일 선발대도 아닌데 지금 가 봐야 뭐 할 일이 있을까 싶었지만 그건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나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이었다. 객실을 정리하고 물품을 챙겨 넣는 것부터 현수막과 회원들의 명찰, 기념품, 진행에 필요한 마이크와 컴퓨터 설치 등은 물론이고 진행 상황에 따른 동선 파악까지. 그저 아는 것 하나 없는 신입 회원은 아까까지의 어리석은 생각은 바로 잊고 이리저리 열심히 옮기고 치우고 나를 뿐이었다.

음향 녹음과 발표를 위한 빔프로젝터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자 속속 회원들이 도착하였다. 기념품과 안내서를 나눠 드리는데 지방에서 오신 분들과 원로 선배들은 처음 뵙기에 약간은 생경한 마음이 들었으나 이내 같은 속기인이라는 마음에 왠지 모를 친근감이 동했다. 매일 보는 선배님들도 서울이 아닌 맑은 기운 도는 용봉산 자락에서 뵈니 반가움이 배는 더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이번 제19회 속기학술세미나는 사상 최초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막방송 속기사 분들이 실시간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짧게나마 자막방송에서 근무했던 기억이 떠올라 편집 자리에 앉아라도 보고 싶었으나 이내 포기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이사장님과 부회장님의 축사 및 원로 선배님들의 인사로 제19회 속기학술세미나의 문을 열었다. 곧이어 주제 발표가 있었다. 우리 고대 역사에 대한 제1주제와 이제는 주목받은 지 한참 지나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인 유비쿼터스에 대한 제2주제 강의. 무척이나 유익한 내용이었지만 스태프로서 강의에 집중할 수 없었던 건 아쉬웠다. 그러나 그런 기회는 앞으로 얼마든지 올 것이고 이번처럼 보

이지 않는 곳에서 행사를 돕는 일 또한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에 주어진 자리에서 내 몫을 다하는 것에 충실했다.

특히 전에는 잘 몰랐던 것이 하나의 행사를 위해 많은 인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었다. 장소를 계약하고 강사를 섭외하고 차량을 대절하고 식사를 준비하며 그 외에 혹시나 무언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지켜보는 모든 것들. 우리의 주된 업무인 속기는 아니지만 분명히 중요한 일이며 오히려 더욱 보편적인 일이기도 하며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 그 누군가가 되었다는 것에 새삼 보람을 느꼈다.

주제 발표가 끝나고 장내를 정리한 후 먹음직스럽게 차려진 뷔페와 함께 속기학술세미나의 하이라이트인 2부 행사가 시작되었다. 평소에 말 붙이기 어려운 선배님들과도 소탈하게 건배 마주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기회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회원님들도 뵙고 다른 기관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저런 사정을 들을 수도 있는 시간. 평소에는 절대 볼 수 없는 선배들의 놀라운 가창력과 화려한 웨이브를 감상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 등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알찬 시간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각자의 숙소로 자리를 옮겨서도 즐거운 시간은 계속되었다. 부어라 마셔라 돌아가는 술잔에 터놓고 나누는 대화와 선배들의 속 깊은 충고가 이어지며 앞으로 속기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것을 느낀 자리였다. 이 글을 빌려 좋은 말씀 주신 선배님들께 사의를 전한다.

하나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 즐거운 만취 이후에 찾아온 불청객 알코올성 단기기억상실로 인해 좋은 교훈들은 다 잊어버리고 설상가상으로 지독한 숙취까지 친구 하자며 따라오고 말았다. 깨는 둥 마는 둥 뜨거운 국물로 속을 달래며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물론 항상 다짐뿐이기는 하지만.

기념사진을 찍고 용봉산으로 향했다. 이동하면서 한적한 교외의 푸르름으로 탁해진 각막을 닦아내고 차에서 내려 파릇한 자연의 기운을 가슴 가득 꾹꾹 눌러 담으니 그제서야 점시 나갔던 정신이 제 집을 찾아 돌아왔다. 용과 봉황을 타고 맑게 갠 청천을 유람하며 그동안 바쁘게 살아 온 나를 잠시 접고 주위를 돌아보았다. 하아……. 하나 모처럼 맞는 사색의 시간은 야속하게도 왜 이리 화살 같은지. 아쉬움을 뒤로한 채 다음을 기약하며 발걸음을 서울로 돌렸다.

그렇게 제19회 속기학술세미나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행사 전체적으로는 나무랄 데 없었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입사 후 처음 맞은 큰 행사여서 그런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고 실수한 부분도 있어 역시 아직은 의욕만 너무 앞선 새내기였다는 반성을 하게 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모든 걸 잘할 수는 없는 법이라며 이해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는 선배들이 있기에 이번 세미나를 좋은 경험으로 삼을 수 있었다.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모든 일은 언제나 아쉬움으로 끝을 맺는다. 그러나 끝은 언제나 또 다른 시작이기에, 봄이 지나도 봄은 다시 찾아오기에 그 아쉬움 덮어 두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련다. 작년보다 나은 올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항상 발전하는 내가 되기를 몸소 느낀 소중한 경험. 절대 잊을 수 없는 나의 첫 속기학술세미나.

5급 승진임용예정자

오경애

이 글을 쓰는 현재 나의 정확한 위치는 '속기직 5급 승진임용예정자'이다. 지난 3월 말 시무처에서는 5급 승진심사가 있었다. 각 직렬별로 행해진 심사에서 우리 속기직은 모두 3명의 임용예정자가 결정되었다. 국회 속기직 9급으로 들어와서 올해로 29년째 근무하고 있다.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승진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드린다. 아직은 가족이나 친구 또 주위 분들로부터 축하를 받기에 버쁘지만 그리 실감이 나지는 않는다. 아마도 6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나서 임용장을 받고 근무를 해 가면서 차츰 현실로 느끼지 않을까 생각된다.

최근 몇 년간 내 직장 생활의 화두는 '승진'이었다. 후배 시절에는 승진이란 선배님들의 전유물이려니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며 근무했었다. 그러다가 차츰 내 앞으로 그 문제가 다가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아직은 내 일이 아닐 거라고 외면하는 마음으로 버텼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말았다. 이젠 선배님들의 문제가 아닌 바로 내 문제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 사이 승진 제도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뽑는 방식이 시험제에서 심사제로 바뀐 것이다. 두 제도에 있어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공통된 것은 어느 제도로 뽑더라도 승진이라는 시험대를 통과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점이다. 심사제로 대상자를 뽑는 횟수가 다해지면서 심사제 안에서도 약간의 변화는 계속 있어 왔다. 없던 면접이 새로 생겼고 면접의 양식도 조금씩 바뀌었다. 급기야 올해는 역량비전기술서까지 써야 했다. 물론 그동안 나는 연거푸 탈락의 고배를 마셨고 또다시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큰 고통이었다.

올해 승진심사를 준비하면서 나는 '이번이 마지막이길'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제도에 있어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다면평가에 있어 몇 가지 변화가 있었고 새로운 교육제도가 이번부터 시행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이 내가 이번 심사에서 통과되는 데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다. 준비할 때에는 마냥 어렵고 귀찮게만 느껴지던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도 배울 점이 많았다는 것을 이제서야 느끼고 있다.

요즈음 신임관리자 과정 교육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나에게 물어보는 과제는 과연 내가 제대로 사무관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다. 잘 해야지 하는 다짐을 하면서 매일 아침 집을 나선다.

2012년을 내 인생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으로 기억하고 싶다. '승진'이라는 기회가 끝내 나에게는 안 오는 것 아닐까 하는 조바심과 초조함으로 결과 발표를 기다리던 나에게 여러 방면에서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앞으로 주어진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끝으로 이번 심사에서 선한 싸움을 같이 해 준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격려와 위로를 보내면서 다음 기회에는 꼭 승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글을 맺는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백종인

내가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향해 노력했던 열정과 초심을 잊지 않는다면 어떤 힘든 상황이 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국회에서 동기들과 함께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선배님들의 합격수기를 읽으면서 국회 속기사로서의 꿈을 키워 왔던 내가 이제는 2012년 국회사무처 의정기록과 새내기로 합격수기를 쓰려니 뭔가 벅차오르는 감동과 뿌듯함을 느낀다.

내가 처음 속기를 시작하게 된 것은 우연한 계기였다.
대학 졸업을 한 학기 앞둔 어느 날 나는 취업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작정 휴학을 했다.
휴학 기간 동안 나는 진로를 찾기 위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러다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국회 속기사를 알게 되었다.

'속기사'.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그 단어에 나는 왠지 모를 매력을 느꼈다.

평소 필기를 잘해서 내가 한 필기를 친구들끼리 돌려보곤 했었던 나의 학창시절이 떠올라서였을까… 속기사가 나의 적성에도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고민할 새도 없이 바로 학원을 알아보았고 그렇게 국회 속기사를 목표로 속기에 입문하게 되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처음 속기를 배울 때는 정말 내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설 만큼 어려웠다. 하지만 키보드의 배열과 자판을 익히고 나서 듣고 치기를 시작하면서 나는 속기에 재미를 붙이게 되었고, 이 분야에서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 그렇게 나는 속기를 나의 천직이라 여기며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러나 속기자격증 1급을 취득하기까지 순탄치만은 않았다. 3급 실력이 됐을 때 '3급쯤은 당연히 붙겠지' 하고 자신 있게 3급 시험에 응시했었는데 3급 시험에 떨어진 것이었다. 나는 그때부터 마음을 다잡고 다음 시험에서 무조건 1급을 따겠다는 목표로 매달렸고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아마 한번 3급 시험에 낙방한 것이 1급을 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다.

그렇게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바로 국회를 준비한 것은 아니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니 먼저 실무경력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당시만 해도 국회시험을 준비할 만큼 의지가 강하지 않아 공부를 해도 잘 될 것 같지 않아서 일단 취업을 결심했던 것이었다.
사실 그때는 국회 속기사라는 목표는 내겐 너무 높아 보였고 지금까지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걸린 시간도 만만치 않은데 언제 국회 준비를 해서 또 시험을 보겠냐는 막연한 생각에 일

단 취업을 해서 속기 분야에서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처음 속기사로 근무한 곳은 단국대학교 교육속기사였다.

처음에는 교육속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시작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속기를 하면서 굉장히 뜻 깊고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다.

청각장애 학생과 함께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실시간으로 속기를 했고, 청각장애 학생이 내가 작성한 속기를 보면서 공부한다는 게 너무나 신기했다. 내가 배운 속기가 이렇게 보람된 곳에 쓰인다니 뿌듯했다. 그리고 그때 학생들의 공부를 도와주면서 학생들이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밝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다. 그래서 늘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실천하지 않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도 말뿐이 아니라 정말 내 꿈을 향해서 도전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겼다.

그 후 단국대학교에서 일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중앙일보 정치부 소속 국회 파견 속기사로 일을 하게 되었다. 국회로 파견된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됐지만 속기에 입문하면서 목표로 했던 국회에서 속기를 하게 된다는 점이 나를 설레게 했다.

국회 내 중앙일보 속기사로 근무하면서 나는 국회 속기사에 대한 꿈을 더욱 키워 나갔다. 그곳에서의 일은 국회 속기사의 일과 비슷했기 때문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회에서 열리는 회의를 국회 속기사는 직접 회의장에 가서 속기를 하고 번문작업을 거치지만 기자실에서는 중요한 이슈 중심으로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회의를 보고 실시간으로 기록해 내는 일을 하였다. 실시간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국회 속기사가 하는 일을 비슷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 흥미가 생겼고 즐겁게 일을 했다.

회의를 속기하다 보면 가끔 화면 속에 국회 속기사의 모습이 비치곤 했다. 화면 속 국회 속기사를 보면서 나도 지금은 이곳에 있지만 언젠가는 회의장에 가서 현장에서 직접 속기를 할 수 있는 날을 꿈꾸기 시작했다.

그렇게 어느덧 실무경력을 쌓은 지도 1년 즈음 나는 이제 내가 꿈에 그리던 국회를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일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이대로 시간이 계속 흘러갈 것 같다는 불안감이 나를 찾아왔다. 그렇게 늘 생각뿐이던 국회 공부를 결심했다.

처음에는 일을 병행하면서 공부를 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일을 하면서 하기란 쉽지 않았다. 나는 과감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딱 1년만 투자해서 공부에만 전념하자는 전략을 세웠다. 부모님께도 1년만 기다려 달라며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때 부모님은 아무 말씀 없이 나를 믿어 주셨다.

그러한 믿음이 감사하기도 했지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만 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일을 하면서 국회를 준비하다가 떨어지면 핑곗거리라도 있을 텐데 핑곗거리도 없이 온전히 나의 노력을 평가받는다는 생각에 부담감이 들었다. 혹여 떨어지면 20대의 1년을 허비한 것이라는 생각에 심리적으로 힘이 들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의 조급한 마음이 나 자신을 더욱 열심히 하도록 채찍질하게 했고, 그런 결심을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내가 목표했던 1년 안에 국회를 합격하게 만든 비결이 된 것 같다.

공부를 시작해서 처음 6개월은 필기시험에 비중을 두고 공부를 했고, 다음 6개월은 필기와 실기를 적절히 병행해서 준비했다. 공무원 공부는 처음 해 보는 것이어서 처음 시작할 때는 1회독을 하기도 굉장히 힘들었다. 하지만 무엇이든 시작이 힘든 것일 뿐 1회독 2회독을 해 나가고 책 내용이 이해가 될수록 공부에 흥미도 생겼다. 어느 정도 필기공부가 익숙해질 즈음에는 실기공부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국가자격증 1급을 취득했지만 속기는 꾸준히 연습하지 않으면 실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기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필기와 병행해서 연습을 해야 했기 때문에 오전에는 필기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속기연습을 했다.

1년 동안의 나의 생활을 돌이켜 보면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이 꾸준히 공부하고 연습을 했었던 것 같다. 속기연습을 마치고 잠자리에 누울 때는 항상 내가 합격해서 국회로 출근하는 즐거운 상상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한 긍정적인 생각이 공부에 지친 내 마음에 많은 위로를 주었던 것 같다.

아침 일찍 일어나 공부하고 오후가 되면 졸린 눈을 비비고 속기 연습을 한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 갈 즈음 은이 좋게도 내가 계획했던 시기에 맞게 국회 속기사 채용공고가 떴다.

하늘이 도운 것일까 예고에도 없던 국회 속기직 채용 공고가 뜬 것이다.

공부한 지 1년이 다 되어갈 즈음 나는 공고도 언제 날지 모르는 시험 준비에 점점 슬럼프에 빠지고 있었다. 그때 마침 국회 공고가 났고 이번이 나에게 온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시험에 더 전념할 수 있었다.

그렇게 1차 필기시험을 치렀다. 필기시험 당일은 생각보다 떨리지 않았다.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는 생각에 떨릴 시간조차 없었다. 1차 필기시험이 끝난 날 나는 정말 1년 만에 편하게 잠자리에 들었던 것 같다. 2차, 3차보다 필기시험을 가장 걱정했던 나로서는 필기시험이 끝나니 긴장이 풀리고 그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그렇게 얼마간의 휴식을 갖고 바로 2차 실기시험 준비를 했다. 어느덧 1차 시험 발표 날이 다가왔고 다행히 필기시험은 합격이었다.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누구에게도 내가 열심히 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노력했고 그 결과에 감사했다.

2차 실기시험은 긴장하지 않고 실력발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험을 보러 집에서 출발하면서부터 나는 마음을 다잡았고 시험장에서 긴장하지 않고 평소대로 집중해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었다. 인터넷 강의로 시험 대비반을 듣고 실기시험을 준비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 3차 면접 날은 오히려 2차 시험보다 더 긴장이 되었다. 여기서 떨어지면 1차, 2차 합격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긴장이 됐던 것 같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면접장에 가 보니 나 홀로 여자이고 시험을 보러 온 사람들은 모두 남자였다. 그때 나는 하느님께 감사드렸다. '아무리 그래도 여자 한 명은 뽑아 주시겠지…'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이런 생각을 하니 긴장이 풀리고 자신감을 갖고 임할 수 있었다.

그렇게 나는 1차, 2차, 3차까지 쉬지 않고 전력질주하며 레이스를 완주했고 2012년 합격자 명단에 드디어 내 이름 석 자를 올릴 수 있었다.

현재 국회 속기사를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도전도 해 보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도전한다면 좋은 결과가 기다릴 것이라는 말을 해 주고 싶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모든 결과가 나온 후 자기 자신에게 "수고했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노력한다면 못 이룰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어느덧 국회에 입사한 지 이제 3개월이 되어간다. 3주간의 신입실무자과정 연수를 마치고 이제는 부서에 배치되어 국회 의정기록과에 내 이름이 새겨 있는 보금자리 하나를 만들었다.

짧은 3개월이 지났지만 나에게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갑작기 열리는 소위원회와 또 여야의 입장 차이로 회의장이 소란한 상황에서 회의장을 막고 서 있는 사람들을 헤치며 속기를 하러 들어가기도 했다.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회의를 무작정 대기하다가 밤이 늦어서야 퇴근하기도 했다. 바쁜 일정으로 힘든 나날도 있었지만 회의장에 처음 들어간 그 순간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렇게 회의장을 다녀오면서 느낀 것은 선배님들에 대한 존경심이었다. 신입이라 회의장 위치도 모르고 모든 것이 어설프기만 한 나에게 주무님을 비롯한 선배님들은 존경의 대상 그 자체였다.

막상 회의장에 들어가 보니 속기사는 단순히 발언을 기록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상황과 분위기를 파악해서 회의를 기록해야 했다. 또 회의장을 나와서는 회의록 체제에 맞게 꼼꼼히 번문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국회만 합격하면 공부는 이제 끝이겠지 했던 나의 생각은 100% 착각이었다.

속기실력은 기본이고 국회 회의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사와 이슈에 늘 관심을 갖고 회의장 상황에 민첩하게 대처해야 하며, 완벽한 회의록이 탄생하기까지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이제는 국회에 합격하는 것은 속기의 끝이 아니라 속기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든다. 10년 이상씩 근무하신 선배님들을 보면 '나도 언젠간 저렇게 능숙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날이 오겠지'라는 부푼 꿈을 안고 오늘도 선배님들께 하나하나 일을 배워 나간다.

앞으로 국회 속기사로 근무하면서 힘든 일도 많겠지만 내가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향해 노력했던 열정과 초심을 잊지 않는다면 어떤 힘든 상황이 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입사 3개월이 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도 늘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겠다.

"초심을 잊지 말자."

감사합니다.
의정기록과 정현석입니다.

정현석

중국 해외연수

1. 들어가며

국회 속기사의 합격수기를 보며 나도 꼭 들어가서 기회가 되면 써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다. 다른 동기들의 사연과 기쁨이 나보다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내가 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동기들이 나에게 배려를 해 준 덕분에 이렇게 합격수기를 쓰게 되었다.

그럼 전라도 시골 촌놈이 금의환향한 이야기를 한번 펼쳐 보이겠다.

2. 전라도 촌놈 국회 속기사를 꿈꾸다

국회 속기사를 처음 알게 된 건 초등학교 시절이다. 수학여행으로 국회의사당을 견학했는데 본회의장 한가운데 언뜻 보니 '스마일'처럼 보이는 자리가 있었다. 몇 년이 흐른 뒤 뉴스를 시청하다 그 자리가 본회의장 속기사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취업난에 허덕이던 나는 2006년 2월 국회 속기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집 근처에 속기학원이 없어 광주까지 가서 배워야만 했다. 한 달이 지나 기초과정이 끝날 무렵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학원을 그만둬야 했지만 기계를 사는 과감한 선택을 했다. 다음에 집안 사정이 좋아지면 꼭 다시 배우겠노라 다짐하며 말이다. 힘든 상황에 무모할 수도 있는 선택이었지만 어쩌면 희망의 끈을 남겨 놓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다.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면 부모님의 연이은 사업 실패로 인해서 학업도 중단하고 일을 해야 했다. 자랑거리가 아닌 자랑거리가 되어 버렸지만 대학 4년 동안 장학금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 그 이유는 조금 애처롭다.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하고자 함도 아니요 단지 장학금 때문이었다. 조금이라도 학비의 부담을 덜고자 장학금과 학원강사 일을 해야만 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러갔고 2008년 10월 집안 사정이 조금은 나아졌다. 부모님께 내 꿈을 말씀드리고 한 달간의 설득 끝에 서울로 올라왔다.

그렇게 꿈을 이루기 위해 2008년 11월 다시 속기자판에 손을 올렸다. 다행히 2009년 4월 1급과 2급 시험에 합격했다. 학원 원장님께서 형편이 좋지 않은 것을 아시고 학원강사를 하면서 국회 준비를 해 보는 건 어떻겠냐며 강사 제의를 하셨고 강사일을 하면서 국회 속기사의 꿈에 박차를 가했다.

3. 금의환향을 위하여

2009년 4월에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5월에 있는 국회시험은 버거웠다. 2009년 국회 필기시험은 경험이었다. 하지만 2010년은 나름 열심히 준비했다. '이 정도 점수면 붙겠지'라고 생각

했는데 보기 좋게 낙방을 하고 말았다. 학원 옥상에서 2시간을 울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필기시험에 떨어진 것보다 속기사로서 실기시험을 볼 수 없다는 그 억울함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부모님과 약속한 2년이 지났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전해 보고 안 되면 부모님 뜻대로 하겠노라고 부모님을 설득했다. 부모님께서는 안 그래도 미안한 마음뿐인데 1년을 더 한다고 하니 눈물이 먼저 앞서셨는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셨다.

그렇게 마지막 도전이 시작됐다. 괜한 자격지심에 학원생들이 손가락질 하는 것 같아 창피했지만 주위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촌놈의 단단한 철판얼굴이 나의 주무기였던 터라 1년은 더 참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강시일을 시작하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국회 속기사를 준비하면서 가르쳤던 학생들이 하나둘씩 법원, 의회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나와 같은 꿈을 꾸는 경쟁자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나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추억이지만 여섯 번의 명절을 쓸쓸히 혼자 보낸 그 당시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독한 마음을 품었기에 부모님께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명절 때마다 가족을 생각하며 학원 옥상에서 금의환향하는 모습을 그리곤 했다.

4. 도전 그리고 감격의 순간

1년 뒤 2011년 12월 10일 필기시험 날,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시험에 임했고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실기시험이 걱정이었다. 필기시험에서 떨어진다면 실기시험을 볼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필기시험에만 매달렸던 것이다. 실기시험은 자신이 있었고 필기시험 후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전의 실력이 돌아오기에 3

주란 시간은 너무 부족했다.

필기시험 준비를 할 때였다. 학원강사 동료가 나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건방지다고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무슨 깡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자랑을 1년 동안 쳐다보지도 않았으니까 말이다. 비록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실기시험 준비에 임했다.

실기시험 당일 논설체 시험이 시작되었고 내 다리는 사시나무 떨리듯 심하게 떨렸다. 낭독 도중에 다리를 붙잡은 적도 있을 만큼 심하게 떨어버렸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심정으로 연설체 낭독 시작 전 마음을 가다듬고 시험에 임했다. 다행히 실기시험에 합격을 했다.

면접 당일 면접순서가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혼자 생각할 시간이 많았다. 참문 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가끔 한강을 보았지만 그날따라 정말 평온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시키기 위해 일부러 그 자리에 앉히셨는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준비한 면접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되뇌는 것을 중단하고 꾸밈없이 나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기로 했다. 면접장 문을 열고 들어갔고 면접까지 모든 시험이 끝이 났다.

3일 후 합격자 발표가 있었지만 그 3일은 정말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발표만을 기다렸다. 합격자 발표 날 거리에서 방황하던 중 친한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나는 그날 나를 응원해 주는 이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난 믿기지가 않았다. 근처 PC방을 찾아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서야 실감이 났다. 그렇다, 내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있었다. 그날 잊고 있던 하늘을 쳐다보았다. 하늘은 참 맑았다.

5. 금의환향

2012년 1월 13일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나에겐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다. 합격자 명단을 카메라로 찍고 한동안 그 사진이 내 휴대전화 배경화면이 되었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아서 부랴부랴 표를 예매했다. 3년 만에 정식으로 고향땅을 밟은 것이다. 어머니께서는 나를 보자마자 펑펑 우셨고 나도 어머니를 따뜻하게 안아드렸다. 국회 속기사의 꿈을 끝까지 반대하셨던 당신이기에 미안한 마음이 드셨는지 자꾸 '미안하다'라는 말만 되풀이하셨다. 그 순간 2008년 11월 서울에 올라와서 2012년 1월, 3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던 내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웠고 그 시간이 한 편의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3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 나를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해 주었다. "촌놈이 용됐브렀어", "금의환향이구마잉"

6. 새로 생긴 별명

2012년 1월 30일 임용식 때 공무원증을 목에 걸었다. 사진을 찍어 부모님께 보내 드렸는데 좋아하시는 그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 뿌듯했다. 3주간의 신입실무자 교육과정은 그동안 고생한 시간에 대한 보상인 것처럼 즐거웠다. 동기들 한 명 한 명 별명을 지어줬는데 내 별명은 '볼매'라고 지어줬다. 이미지 메이킹을 가르치는 강사분이 강의 중에 지어준 별명이다.

연수가 끝날 무렵 동기들과 술 한잔 하면서 한 이야기인데, 동기들이 왜 볼매로 지어줬는지 처음에는 의아해했다고 한다. 나도 정말 당황스러웠고 이상하게 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었다고 말했다. 이제는 동기들이 내 이름보다 볼매라고 더 많이 부른다. 나도 '볼수록 매력 있다'는 이 말이 참 좋아졌다. 3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보석 같은 내 동기들을 만난 것에 대해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하다.

7. 마치며

동기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공감이 가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합격이 취소되는 꿈을 종종 꾼다고 한다. 나도 마찬가지다. 식은땀을 흘리며 "안 돼!" 하며 깬다. 다행히 꿈이라서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국회 속기사가 된 지금 나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학원에서의 강사일은 자격증을 따기 위한 일이었지만 국회 속기사는 역사를 기록한다. 전혀 딴판인 이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나의 주무님께서 그리고 선배님들께서 열심히 국회회의록 작성 편람 공부와 기타 업무에 대해 잘 가르쳐 주신 덕분에 잘 해 나갈 자신이 있다.

에피소드를 하나 꺼내며 마칠까 한다. 입사 후 선배님들께 새내기를 소개하는 자리가 있었다. 동기들과 함께 개그콘서트의 '감사합니다'라는 코너를 패러디해 우리의 사연을 담은 '감사합니다'를 준비했는데 그 공연을 좋게 봐 주셔서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2'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 그래서 얼마 전 '감사합니다 2'를 선보였고 그 이후 우리 새내기의 닉네임은 '감사합니다'가 되었다. 그래서인지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을 때도 "감사합니다. 의정기록과 정현석입니다."라고 말을 한다. 처음에는 '감사합니다'를 뺄까도 고민했지만 개그콘서트 대사처럼 나는 지금 이 세상 모든 일들에 대해 감사한다. 그래서 빼지 않기로 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전화가 오면 이렇게 전화를 받는다.

"감사합니다. 의정기록과 정현석입니다."

승진, 그리고 유학

손숙자

2010년 5월 28일

많은 분들의 도움과 天運으로 사무관으로 승진하였다.

두 달 동안 교육을 받고 보직을 받은 직후 과장님께 인사드리러 갔더니 "이 때가 제일 좋은 때입니다. 이 기분을 만끽하세요. 막상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라고 하시는데 그때는 내 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정말로 하루, 한 달, 1년을 생활해 보니 그 말이 점점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승진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힘든 점도 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뿐이다.

거두절미하고 나는 국회 의정기록과에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승진한 케이스다. 의정기록과는 국회사무처에서 인사 적체가 가장 심한 부서이기 때문에 나는 승진하기 전부터 그리고 승진한 이후로 내가 어떻게 해야 후배들에게 좀 더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까 항상 고민했었다. 그런 보이지 않는 고민과 노력 속에서 유학을 생각하게 되었다. 결정을 내리야 했다.

현행 국회사무처 규정상 만48세까지 유학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직들은 본인이 유학을 가고자 하는 나라의 언어점수라든지 자녀들 교육 등을 고민하지 나이는 전혀 생각할 필요도 없는데 의정기록과는 언어점수는 물론이요 거기에다 나이까지 고민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2011년 10월

다행히 모든 구비조건을 갖추었다. 그리고 사무처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유학생으로 선발되었다. 결국 의정기록과 사무관 한 자리가 새로 생긴 것이다. 그간의 힘들고 복잡한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줄이겠다.

2012년 2월 20일부터 2014년 8월 20일까지 2년 6개월 동안 중국 유학생으로 명한다는 공문을 보고 '아, 정말 유학을 가는구나! 나도 남의 나라로 이사를 가는구나!'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은 되었지만 현실감이 없었다. 해야 할 일은 많은 것 같은데 무엇부터 먼저 해야 할지 막막했다. 우선 큰 가닥부터 정하기로 했다.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누구랑 갈 것인가? 어디에 집을 정할 것인가? 서울에 있는 집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역사에 관심도 많았지만 그동안 주말이라든가 일과 이후 시간에 조선왕조실록을 계속 공부했었다. 그래서 중국의 기록문화가 몹시 궁금했기 때문에 일단 역사학을 공부하기로 했다.

나는 아들과 딸이 있다. 아들은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본인의 선택으로 한국에 남아서 좀 엄하겠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딸하고 같이 중국에 가기로 했다. 그런 까닭으로 서울 집도 그냥 두는 것으로 되었다. 이 두 가지를 결정하고 나니 짐을 얼마나 가지고 가야 할지, 북경에 집을 구하는 것도 어떤 규모로 정해야 할지가 자연스럽게 결정되었다.

정말로 다행인 것은 지금 북경에 이강근 서기관하고 김건식 사무관 두 분이 중국유학 선배로 있고 또 두 분 다 자주 전화로, 메일로 꼭 필요한 것들을 잘 알려줘서 다른 나라 유학생보다 고생을 덜했다.

2012년 2월 20일 월요일.

북경에 도착했다.

이강근 서기관과 김건식 사무관이 공항으로 마중을 나와 주셔서 어찌나 안심이 되던지…… 일단 호텔로 직행.

〈집〉

제일 급한 것이 집 구하기였다.

북경은 한국과 달리 월세인데 한 달치 야진(보증금)을 더해서 집주인에게 줘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북경의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데 그 주범이 주택 가격이란다. 북경의 주택 가격은 정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중이라서 중국 직장인들이 북경에서 집을 사기란 하늘의 별 따기. 개혼에서 나온 것처럼 솔만 쉬고 한 40년 모이야 겨우 살까 말까라니…… 거기에다 환율도 올라서 지금 현재 한국 돈 180원이 중국 돈 1원이다.

북경의 한인촌이라 불리우는 "왕징"이란 곳은 지금 현재 한국 교민이 10만 명이다. 나도 물론 여기에 집을 구해서 살고 있지만 정말 한국 사람 많다.

지금 북경 왕징에서 유행하는 '미친 여자' 시리즈를 말한다면,

1. 진짜 명품만 사서 쓰는 여자.
2. 가정도우미 안 쓰는 여자.
3. 중국말 배우는 여자.

나는 현재 두 가지가 해당되니 두 번 미친 게 되는 건가!!

(중국도 짝퉁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 특A급 짝퉁을 구하기도 힘들지만 짝퉁 값도 만만치 않다.)

〈언어연수〉

지금은 언어연수 기간이기 때문에 "북경경제관리간부학원"에서 언어연수를 하고 있다. 많은 유학 선배들이 언어연수 기간이 제일 편한 때이니만큼 여행을 많이 다니라고 하던데 내가 지내 보니 지금 이 기간에 언어를 제대로, 많이 공부하지 않으면 대학원에 가서 강의 듣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 학원에도 북경의 다른 언어연수기관과 마찬가지로 많은 외국인들이 다니고, 특히 한국 사람이 제일 많다. 행정부 유학생들은 거의 민항학원이라는 건너편 학원에 다니고 경제관리간부학원은 여태까지 우리 국회 출신들이 다녔단다.

북경경제관리간부학원은 교수진도 우수하고 학생 관리를 철저히 잘 하고 있다. 출석률이 저조하고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면 퇴학시키고 다시는 재입학을 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비자가 거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출석률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장학생도 선발한다.

각 대학마다 그리고 웬만한 학교에서는 다 언어연수를 하고 있다.

〈대학원〉

대학에 관해서 말하자면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류대학 이류대학을 구별한다. 일류대학은 흔히 말하는 북경대학, 청화대학, 인민대학, 북경사범대학 정도이고 이류대학은 정법대, 북경어언대, 북경외국어대, 중앙민족대학 등등이라고 한다. 북경에 있는 대학교만 해도 80개가 넘는다고 한다.

중국은 9월에 학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대학원 수속은 5월, 6월 중에 이루어지고 학교보다는 지도교수를 먼저 알아보라고 조언해 주고 있다. 지도교수하고 먼저 연락해서 지도교수가 OK 한 다음이라야 입학이 용이하기도 하고 나중에 졸업논문 쓸 때 덜 힘들기 때문이란다.

지금 나는 나를 지도하실 교수님이 일본 학교의 초청으로 일본에 체류하시기 때문에 6월이 되어서야 교수님을 뵙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다.

〈북경생활〉

한 5년 전만 해도 북경에서 100위안(한화 18,000원)을 들고 시장에 가면 100위안을 들고 간 사람 손이 부끄러울 정도로 물건값이 쌌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100위안으로 과일 한두 가지하고 야채, 생선 정도를 살 수 있다. 다만 종류가 많을 뿐이다. 육류 값은 한국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기타 한국 공산품은 여기에도 다 있는데 관세가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 조금 비싸다. 내가 한국에서 을 때 공산품을 사가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것보다는 필요한 것은 여기 와서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버스와 전철요금은 엄청나게 싸다. 기본거리에 버스는 한화 72원, 전철은 180원 정도? 물론 멀리 가면 할증되기는 하지만 보통 2위안(한화 360원) 정도면 충분하다. 단점은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어디를 가든 한 시간은 걸린다.

택시를 타려면 기본요금 10위안, 시간 · 거리 병산제이다. 거기에다 유류세 3원을 더해서 내면 된다.

흑차(헤이처, 자가용 영업차)도 있다. 물론 헤이처가 택시보다 비싸다. 헤이처는 약속시간이 급하거나 성질 급하고 돈 많은 외국인들이 즐겨 탄다.

〈북경TV〉

나는 현재 중국 TV 프로그램만 보고 있다.

중국은 한국보다 채널 수가 적다, 아니 많다. 한국보다 적다고 말한 건 한국의 케이블 TV를 합치면 적은 것이고, 많다고 한 것은 공중파 방송은 한국보다 많다. 그리고 프로그램 수는 한국이 월등히 많다. 중국은 한국보다 프로그램을 적게 제작하는 것 같다. 재방송을 자주 한다.

한국 드라마에 관해서는 한 네 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다.

한국 드라마를 중국어로 더빙해서 방영하는 경우, 각본을 사서 중국 배우들을 출연시킨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경우, 한국 인기 드라마의 각본을 사서 한국 배우 한두 명과 다수의 중국 배우들을 출연시켜서 만든 드라마, 중국 원작에 한국의 유명배우 한두 명을 출연시킨 드라마

등이다.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있어서는 한국을 못 따라온다. 다만 중국은 면적이 넓어서 그런지 자막방송이 아주 잘 되어 있다. 물론 생방송 프로그램(뉴스, 긴급대담)은 자막이 없지만 오락, 드라마, 영화 심지어 음식기행, 연예 프로그램, 강연 프로그램 등 거의 모든 TV 프로그램에는 자막이 다 있어서 중국어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우리나라도 자막방송 회사가 여러 개 있는 줄 아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관광〉

북경은 정말 볼 게 많다. 북경 자체도 넓지만 중국이란 나라가 워낙 넓어서 여행만 해도 1년은 더 걸릴 것 같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자급성하고 이화원, 만리장성을 보면 북경은 다 구경했다고 흔히 말한다.

예를 들어 북경에 박물관이 몇 개인가 하면 115개 이상이다. 오죽하면 박물관 통표(通票)가 있을까? 이 통표를 사면 115개 박물관을 어떤 곳은 무료로, 어떤 곳은 싸게 절약해서 관람할 수 있다.

또 공원은 왜 그리도 많은지…… 공원도 "관광지연표(觀光地年表)"가 있고, 사용하는 것은 통표와 비슷하다.

북경 관광객들이 알아야 할 것이 북경의 입장료(門標)는 엄청나게 비싸다. 금년 초에 또 올라서 웬만한 곳은 100위안(한화 18,000원) 안쪽이다. 몇 군데 관람하다 보면 입장료 때문에 예산 초과가 많이 된다. 유명한 명승고적은 입장료가 100위안이 넘는 곳이 많다고 한다.

나는 우리 회원들에게 중국 자유여행을 권하고 싶다. 우리나라가 88올림픽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했고, 2002년 월드컵 이후로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발전과 한국 사람의 진정한 멋을 알았다고 하듯이 중국도 2008년 올림픽 이후 공산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들도 점차 국제화에 눈을 뜨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문화대국임을 자부하고 있다. 실제로 그런지 우리의 젊은이들이 와서 직접 보고 느끼기를 바란다.

〈유학이란 무엇인가?〉

북경에 온 지 이제 두 달 남짓 되었다. 도착해서 일주일은 집 구하는 것 때문에 어영부영했고, 집을 구한 뒤로 생활이 안정된 다음에는 언어연수기관에 적응하느라 한 달이 후딱 지나갔고, 이제 연수기관에서도 두 달이 되어가니 "과연 유학이 무엇인가? 유학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화두가 되었다.

과연 유학이란 무엇인가? 유학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감히 말하건대 유학은 나에게 안식년이기도 하고 자기충전의 시기이기도 하고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다.

올해로 직장생활 29년, 29년 동안 한 곳만 보면서 살아 왔던 내가 이제야 과거도 돌아보고 현재는 어떻게 살 것이고 미래는 어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시기인 것 같다.

2012년 4월

두 달이란 짧은 기간에서 내가 본 것들, 내가 느낀 것들이 한정되어 있고 또 1년 후 2년 후에 어떤 생각이 들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한 직장에서 공부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기를 갖게 된 것은 아무튼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다.

후배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말하고 싶다.
항상 노력하라, 그리고 도전하라!

내가 가진 또 한 가지

성지연

수필속기, 나에게 수필속기란 내가 가진 또 한 가지?
아직은 많이 멀고 정말 아장거리는 수준이지만
열심히 하고 싶다. 그리고 그 재미를 느꼈기에
더더욱 놓칠 수 없는 나의 소중한 한 가지다.

10여 년 전 지방의회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처음 접했던 속기계는 그야말로 신세계 그 자체였다. 배낭여행 얘기, 신입직원 후기, 이런저런 속기사들의 알콩달콩 이야기가 녹아 있는 속기계를 보며 꼭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인 양 신기하게 느껴졌고 언젠가는 나도 국회 속기사의 일원이 되어 속기계에 글을 남기고 싶다는 소망을 품었었는데…… 어느새 신입직원 후기 이후 두 번째 발자취를 남기게 됐다.

이번에 펼쳐 놓을 나의 이야기는 수필속기다.

2003년 국회에 입사해서 처음 주무님의 수필속기 노트 속 꼬부랑 문자들을 접하고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장비 없이 오로지 선배님의 귀와 손에 의해 탄생되는 수필노트 속 수필문자는 하나의 예술품 같고 그 예술품을 창조하고 있는 선배님은 마치 한 분의 인간문화재 같은 느낌이었다. 나도 언젠가는 꼭 배워 봐야지 하는 생각을 했지만 그 후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 감히 엄두도 못 낸 채 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갔다.

그리고 입사 만 8년이 되었을 때 국회에서 이대로 수필속기가 사라지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마침 우리 과 차원에서 수필속기 보존을 위한 연구회가 만들어지고 생각지도 않게 나는 수필속기 교육을 받게 되었다.

이야호! 우와!

그렇지 않아도 혼자라도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수필속기 책을 구해 멀뚱히 들여다보고 있던 중이었는데 친절하게 교육을 시켜 준다니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렇게 나는 수필속기 교육을 받게 되었고 결과는……

처음에는 그렇게 열의에 불타 정말 잘할 자신이 하늘을 뚫을 것 같았는데 어느덧 수필속기 교육이 있는 수요일이면 슬금슬금 눈치를 보고 얼른 가방을 들고 주차장으로 줄행랑을 치고 있는 나, 혹시나 누가 잡을까 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고 있는 나, 수업이 있는 날이면 하루 종일 내내 괴로워하며 갈까 말까 고민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일까? 내가 직접 수필속기 사사(師事)를 부탁하며 매달렸던 분들이 공짜로 친히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수업인데 슬금슬금 도망치고 있는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 수필속기를 배워 보면 다 한번씩 느끼게 되는 관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겸용과 합용으로 인해 쓰기는 어떨지 모르지만 면문이 쉽지 않은 불편함, 생각보다 아쉬운 표현의 정확성, 과연 내가 이것을 써먹을 수 있을지,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지, 시간 낭비만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모든 번민과 고민들이 나를 괴롭혔던 것 같다.

그렇게 수업 빠지기를 두어 달쯤 하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갑자기 번뜩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국회 속기사다. 그리고 이번 생은 속기사로 살고 갈 것이다. 그러면 속기라는 것에 대해서 다 알아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게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써먹을 수 있든 없든 일단 알고나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제대로 배워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수박 겉핥기 식으로 평가하고 지나치고 싶지는 않아' 이런 생각이 들자 수필속기에 대한 강렬한 향학열이 다시 솟구쳐 왔다.

그렇게 다시 시작한 수필속기. 그동안 빠진 수업 몫까지 따라가려면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강사님의 목소리에 귀를 쫑긋, 열심히 따라하고 또 집에 와서도 틈틈이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가며 뭔가 알 수 없는 이 뿌듯함(?), 처음 외국어를 배울 때 그 외국어를 쓰는 외국인을 만나면 어쭙잖은 실력에도 막 아는 척을 하고 싶고 인사하고 싶고 얘기 나누고 싶어서 안달이 나곤 했었는데 아장아장 수필속기가 속도감은 없지만 모든 표현이 다 가능해지는 수준이 되자 수첩과 볼펜만 있으면 다 적고 써 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는 혼자 중얼거린다. 재밌어!!!

하지만 회사에서의 업무와 두 아이를 키우는 주부로서 나에게 많은 시간이 허용되지가 않았다. 할 수 없이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연습하자는 생각에 하루 10분이라도 공부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집에서 아이들을 재워 놓고 가끔 주어지는 여유 시간에 토크쇼나 가요 프로를

들어 놓고 천천히 한 글자씩 따라 적곤 했다.

하루는 밤 11시에 시작하는 토크쇼를 따라 적기 시작했는데 잠시 고개를 들어 시계를 보니 어느새 새벽 4시가 넘어 있었다. 허거덩. 한 번 빠져든 수필속기의 매력, 이 알 수 없는 뿌듯함과 자랑스러움, 그리고 더 많이 알고 싶다는 욕구, 혼자 써 놓고 읽어 보면서 킥킥거리고 좋아하느라 날 새는 줄 몰랐다니. 이렇게 재밌는 수필속기를 몰랐다면 얼마나 아쉬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 다 팽개치고 무조건 따라하다 보니 의외의 소득들이 들어왔다. 함용이 되고 겸용이 된다고 해도 그 위치에서는 그렇게밖에 읽을 수 없어 생각보다 헷갈리지 않는다는 것과 속기문자가 점차 눈에 익자 써 놓고 매직아이 들여다보듯 노려보고 째려봐도 풀리지 않던 번문이 쓱 보고 눈에 턱턱 들어올 때의 그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수필속기의 매력에 포옥 빠져들 때쯤 어느덧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1차 수필속기 교육이 종료가 되었다. 아쉬운 마음을 느낄 새도 없이 정신없이 흘러간 국정감사, 예결위, 소위, 특위 등 쉼 없이 달려와 다시 새봄이 되어 요즘 나는 2차 수필속기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런데 아뿔싸! 작년 1차 교육이 종료된 후 어렵게 배웠는데 완전히 까먹을까 싶어 잠시 짬이 날 때마다 연습하고 달력에도 한글로 안 쓰고 모든 일정과 점심약속을 수필속기로 쓰고 회의장에서 대기하면서도 틈틈이 연습했는데 지금 와서는 다시 살짝 벽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다.

작년에 배웠던 부분과 모음과 받침 면에서 약간씩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미 너무나 익숙해 손에서 저절로 나오는데 다시 새로운 받침으로 바꾸려니 머리가 띵띵 아파온다. 그래도 선배님들이 에써서 더 나은 방향으로, 더 효율적인 쪽으로 체계를 정리하셨다니 힘들지만 다시 수정해서 열심히 따라가야 할 것 같다.

그리고 틈틈이 혼자 책 보며 독학했던 내용이 살짝 나 혼자 나쁜 습관으로 가 버린 것 같다. 그래서 요즘 나는 다시 돌아가 하나씩 점검하고 있는 중이다. 멋모르고 무조건 배우고 앞으로 나아갈 때는 좋았는데 이럴 수가……

하지만 안 좋은 습관과 잘못된 기초가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다시 기초부터 천천히 다질 수 있게 되어 한편으로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수필속기, 나에게 수필속기란 내가 가진 또 한 가지? 아직은 많이 멀고 정말 아장거리는 수준이지만 열심히 하고 싶다. 그리고 그 재미를 느꼈기에 더더욱 놓칠 수 없는 나의 소중한 한 가지다.

작년 그리고 이어서 올해에도 수필속기 보존과 후배 양성을 위해 에쓰고 계신 모든 선배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이 매력에 풍당 빠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 본다.

제45회 정기총회

대한속기협회는 2012년 1월 27일 금요일 오후 6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제4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열린 이번 총회는 김덕진 총무이사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성원 보고,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 검정사업단 박영삼 팀장님에 대한 감사패 증정과 국제속기경기대회 참가자들에 대한 시상 순으로 진행되었다.

파리 국제속기경기대회 리얼타임 종목에 참가하여 김봉철 회원 2위, 이한나 회원 6위, 김진호 회원 10위, 김밀알 회원 11위로 총 101명의 참가자 중 우리 회원들이 모두 상위권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수상하였고 시상은 김기영 부회장님이 해 주셨다.

이후 회의에서는 회장님을 대신해서 김기영 부회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이경식 의장 대리의 주재하에 진행되었는데 김덕진 총무이사의 회무 및 사업실적 보고에 이어 첫 번째 부의안건인 2011년도 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보고와 안기철 감사의 감사결과 보고가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두 번째 부의안건인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역시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세 번째 부의안건은 기타사항으로 협회의 발전을 위한 회원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으로 여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상 3건의 부의안건 심의를 모두 마친 뒤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제45회 정기총회를 폐회하였다.

한글속기 국가기술자격시험 방식 변경

올해부터 치러지는 한글속기 국가기술자격시험이 변경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종전 5분 낭독과 20분의 수정시간을 거쳐 정확도 95% 이상이면 합격이던 것에서 20분의 수정시간이 없어지고 정확도 90% 이상이면 합격인 방식으로, 수정에 의한 정확도보다 입력의 정확도가 높은 속기사를 발굴해 내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속기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신속 · 정확도를 길러준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실무에 투입된 이후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도 필요한 움직임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대한상공회의소 검정사업단에 소개되어 있는 한글속기 종목 안내입니다.

1. 종목소개

국회법 등과 각 기록물관리법에 규정된 속기 방법으로 기록 유지가 필요한 국회, 지방의회, 법원, 행정부, 검찰 및 일반기업 등의 각종 회의, 토론회, 강연회, 녹취 등의 발언 내용을 신속 · 정확하게 입력(기록)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임.

2. 수험용 프로그램

– CAS

– 소리자바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4. 시험과목 (시험시간은 각 5분)

(1) 1급 : 연설체 (1600자 분량의 연설문)
　　논설체 (1450자 분량의 논설문)
(2) 2급 : 연설체 (1500자 분량의 연설문)
　　논설체 (1350자 분량의 논설문)
(3) 3급 : 연설체 (1350자 분량의 연설문)
　　논설체 (1200자 분량의 논설문)

5. 합격기준 : 매 과목 정확도 90%

급 수	구 분	글자 수	합격 기준	비 고
1급	연설체	1600자	1440자 이상	
	논설체	1450자	1305자 이상	
2급	연설체	1500자	1350자 이상	
	논설체	1350자	1215자 이상	
3급	연설체	1350자	1215자 이상	
	논설체	1200자	1080자 이상	

6. 출제 기준

1) 연설체 :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연설체 회의록

2) 논설체 :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정기간행물 및 국내 종합 일간지의 논설, 논평, 포럼

7. 채점 기준

1) 오자 1자당 → 감점 1점

2) 탈자 1자당 → 감점 1점

3) 첨자 3자당 → 감점 1점

4) 외래어, 숫자, 단위 표기 및 한글표기 정답.

※ 외래어, 숫자, 단위 등은 한글표기 했을 경우를 기준 자수로 함.

5) 문장 부호 ! ? 등은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6) 띄어쓰기는 채점에서 제외.

구분	숫자	숫자 표기 및 한글 표기 모두 가능
원문	2012년, 1998년	
번문	2012년, 이천십이년, 1998년, 천구백구십팔년	
기준	이천십이년(5자), 천구백구십팔년(7자)	

구분	영문	영문 표기 및 한글 표기 모두 가능
원문	한 · EU FTA, 뉴욕, 유엔	
번문	한 · EU FTA, 한 · 이유 에프티에이, 뉴욕, new york, 유엔, UN	
기준	한 · 이유 에프티에이(8자), 뉴욕(2자), 유엔(2자)	

구분	단위	단위 표기 및 한글 표기 모두 가능
원문	43%, 30Kg, 20m, 20Cm	
번문	43%, 사십삼퍼센트, 30Kg, 삼십킬로그램, 20m, 이십미터, 20Cm, 이십센티미터	
기준	사십삼퍼센트(6자), 삼십킬로그램(6자), 이십미터(4자), 이십센티미터(6자)	
구분	띄어쓰기	숫자 표기 및 한글 표기 모두 가능
원문	4월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번문	4월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국회를압박하고 있다.	
기준	채점 대상 아님	

구분	오자	낭독 내용과 다르게 입력한 경우
원문	4월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번문	4월 국회에서 처리하 달라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설명	국회에서→국외에서(오1), 처리해→처리하(오1)	
감점	2점(오자2)	

구분	탈자	낭독 내용을 빠뜨리고 입력하지 않은 경우
원문	4월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번문	4월 국회에서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설명	'처리해 달라고' 누락(탈6)	
감점	6점 (탈자6)	

구분	첨자	낭독 내용 이외에 추가로 입력한 경우
원문	4월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번문	4월달 국회에서 꼭 처리해 달라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었다.	
설명	4월달(첨1), 꼭(첨1), 있다→있었다.(첨1)	
감점	1점 (첨자3자)	
구분	첨자/탈자	
원문	4월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번문	4월달 국에서는 꼭 처리해 달라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설명	4월달(첨1), 국회에서는(탈1, 첨1), 꼭(첨1), 달라고(탈1)	
감점	3점 (탈자2, 첨자3)	
구분	오자/첨자	
원문	4월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번문	사월 국외에서는 꼭 처리해 달나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었다.	
설명	국외에서는(오1, 첨1), 꼭(첨1), 달나고(오1), 있었다(첨1)	
감점	3점(오자2, 첨자3)	

구분	오자/탈자/첨자
원문	보고서를 가지고
번문	고지서를 버리고
설명	보고서를 가지고→(보)고지서를 버리고 [(보)탈1, (지)첨1, 버리(오2)
감점	탈자 1, 오자 2, 첨자 1

구분	오자/탈자/첨자
원문	재검증이 여기 있다.
번문	재점검이 여기에 있었고

설명	재정검이(첨 1, 탈1), 여기에 있었고(~에--첨1, ~었고--첨1,오1)
감점	3점 (첨지3, 탈자1, 오자1)
구분	오자/첨자
원문	독일식 정당영부제를
번문	돌까 일실 정당명분제를
설명	돌(오1)까(첨1) 일실(오1) 정당명분(오1)제를
감점	오자 3, 첨자 1

구분	자음/모음	자음과 모음만 기재한 경우
원문		독일식 정당영부제를
번문		독일식ㄱ 정ㄷㅇ명부제를
설명		독일식ㄱ(첨1), 정ㄷㅇ(오1)
감점		오자1, 첨자1

자격시험 합격이 끝은 아닙니다. 속기사로 일하기 위한 시작이겠지요.

속기사로서의 자질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험 방식으로 변경된 만큼 속기사로서 일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기술도 꾸준히 연마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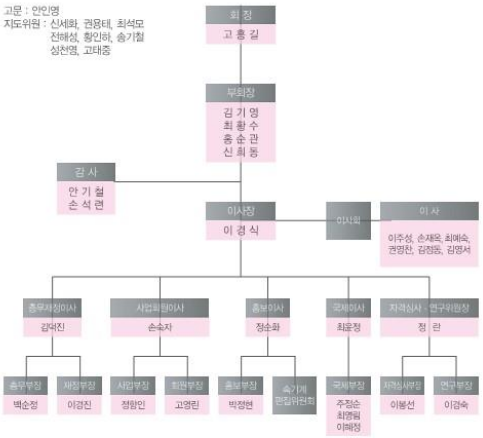
올해 한글속기 국가기술자격시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글속기 시험일정

종목	회차	구분	등급	인터넷접수	시험일	발표일
한글속기	1	실기	1,2,3	2012.04.19 ~ 2012.04.28	2012.05.13	2012.06.12
한글속기	2	실기	1,2,3	2012.08.09 ~ 2012.08.16	2012.09.02	2012.10.04

협회 임원 및 기구표

고문 : 안인영
지도위원 : 신세화, 권용태, 최석모
전해성, 황인하, 송기철
성천영, 고태중



편집후기

처음 시작할 때는 막막함과 함께 의욕이 충만했었는데 벌써 인기 마지막 호를 내게 되니 그동안 열심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이 작은 책에 속기인들의 발자취를 많이 남기려 노력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으며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홍보부원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 정 순 화

홍보부에 참여해서는 네 번째, 부장으로서는 세 번째 내는 속기계입니다.
만들면서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홍보부장 하면서 돌체도 날았는데 어느덧 딸내미가 세 살이네요.
아이가 큰 만큼 제가 속기계에 가지고 있는 열정도 식었을까 되돌아보면 약간 반성은 되지만 항상 그래 왔듯 어떤 상황에서든, 결과가 어찌되었든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 기특한 홍보부원들, 한 번도 빼지 않고 웃는 얼굴로 작업에 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사님도 바쁘실 텐데 신경 써 주시고 도와주셔서 올해는 더욱더 수월하게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 박 정 현

초등학교 이후로 제대로 된 글을 써 본 적이 없었던 나에게 '홍보부 기자'라는 타이틀은 정말 부담스러운 짐이 아닐 수 없었다.
게다가 뒤늦게 합류한 나로서는 얼마나 어색하고 부담스럽던지…
그러나 나의 취약점(?)을 잘 아는 부장님과 넓은 이해심과 착한 마음을 가진 후배들 덕에 무사히 나만의 두 번째 속기계가 완성이 되었다. 전화 몇 통과 이야기 몇 마디에 흔쾌히 원고를 써 주신 분들 덕분이기도 하고 말이다.
작년엔 얼떨떨한 상태였지만 올해는 나름 나의 땀이 살짝 더 뱄기 때문에 집안에 고이고이 모셔 두어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 잘 쓰는 분들 너무 부러워~

– 박 소 연

벌써 네 번째, 그리고 4년 임기 기자로서 마지막 속기계를 완성시켰습니다.
부담스럽고 막막하기만 했던 작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왠지 거뜬히 해낸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그간 편집을 하면서 봐왔던 속기 가족 분들의 생각들을 밤이 공감하여 느낀 게 많았어요.
함께 했던 부장님과 기자님들 모두 고생이 많았고요, 앞으로도 더 나은 속기계 더 의미 있는 속기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 채 신 지

예전에 속기계를 받으면 새 글을 읽는 설렘 그리고 아는 사람의 글을 읽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속기계를 만들면서는 원고를 읽고 읽고 또 읽으니 정작 속기계가 나왔을 때는 죽 한번 보고 만다는……
이제 내년부터는 속기계를 받으면 설렘 그리고 만드시는 분들의 수고로움을 함께 읽게 될 것 같습니다. ^^

– 기 자 영

벌써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편집후기입니다.
처음에는 이 몇 자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너무 길어지면 어쩌나 걱정인 걸 보니 참 신기하네요.
몇 자 허락되지 않으나 다른 말보다는 이사님, 아하 부장님, 부원 선배님들께 감사했다는 말 꼭 전하고 싶습니다.
작년 4년간… 비록 도움 안 되는 막대였지만 ^^;
감히 최고의 팀워크였다고 자신합니다!!

– 김 나 윤

투고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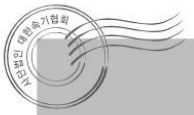
속기계는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 상호 간의 유대와 속기 연구 발표의 창구 노릇을 함으로써 속기 문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책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생각과 정성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야겠지요. 저희 홍보부에서는 언제든 여러분의 글을 환영합니다.

보내실곳 대한속기협회 홍보부 (국회 의정기록과)
TEL. 02)788 – 3086, 3186
홈페이지 www.steno.or.kr
이 메 일 foxy76@assembly.go.kr
내 용 표지그림 · 사진, 연구논문, 수필, 회상기, 시, 시조, 산문, 기타 제언 등

회비 납부안내

납입안내
회 비 1년분 20,000원 (가입비는 10,000원)
협회발전기금 30만 원 이상을 납부한 회원에게는 평생회원으로서 회비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보내실곳
회 비 농협 301-0052-3315-71 이경진 (협회 재정부장)
협회발전기금 농협 036-01-083485 대한속기협회



속기사는...

듣은 대로 기록하고 보태거나 빼지 아니한다.
범문한 원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번지(국회사무처 의정기록과 내)
TEL. 02)788-2371~6

제48호 速記界

발 행 _ 2012년 5월 11일

발행인 _ 고흥길
발행처 _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편집인 _ 정순화
기 자 _ 박정현, 박소인, 제신지, 기자명, 김나영
디자인 · 인쇄 _ 경성문화사(02-786-2999)

전 화 _ 02)788-2371~6
팩 스 _ 02)788-3386, 3387
주 소 _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번지(국회사무처 의정기록과 내)
홈페이지 _ http://www.steno.or.kr

비매품